

新羅 中代 梵鐘의
造成背景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李 康 根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2月 日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 美術史專攻

金 光 洙

金光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병모 

審査委員 정우택 

審査委員 이강근 

1998年 12月 日

慶州大學校大學院

目 次

I. 머리말	1
II. 新羅 中代の 梵鐘과 鐘樓	2
1. 新羅 中代の 梵鐘	4
2. 日本 古代의 鐘	16
3. 新羅 中代 梵鐘의 양식고찰	24
4. 統一新羅의 鐘樓	35
III. 統一新羅 鐘의 造成背景	52
1. 新羅 中代の 政治・社會	52
2. 新羅中代の 王位繼承과 권력분쟁	56
3. 鑄成背景	79
IV. 新羅의 音樂과 政治	92
V. 맺음말	96
참고문헌	98
도판목차	
참고도판	
Abstract	

<도판목록>

도 1) 신라종의 세부명칭	5
도 2) 상원사 종	6
도 3) 상원사종 실측도면	7
도 4)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	11
도 5) 봉덕사종 실측 도면	12
도 6) 觀世音寺鐘의 탁본	18
도 7) 妙心寺鐘의 탁본	19
도 8) 東大寺鐘 실측도면	23
도 9) 사천왕사지 추정가람배치도	35
도 10) 황룡사지 가람변천도	39
도 11) 황룡사 종루지	41
도 12) 불국사 범영루	44
도 13) 불국사 대웅전 一廊 평면도	45
도 14) 정릉사지 가람배치도	48
도 15) 군수리사지 가람배치도	50

<참고도판목록>

- 도 1) 상원사동종 : 통일신라(725년), 국보 36호, 높이 1.67m, 평昌 상원사 소장
- 도 2) 상원사동종 주악비천상
- 도 3)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 : 통일신라(771년), 국보 29호, 높이 3.33m,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 도 4) 봉덕사종의 용뉴
- 도 5) 봉덕사종의 口緣 보상화문
- 도 6) 봉덕사종의 비천상
- 도 7) 봉덕사종의 유곽
- 도 8) 실상사파종 : 통일신라,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 도 9) 실상사파종의 유곽대
- 도 10) 청주박물관 소장 종 : 통일신라, 높이 0.64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 도 11) 청주박물관 소장 종의 유곽

I. 머리말

鐘의 起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의 통설은 中國 殷나라 말기의 禮器 가운데 악기의 일종인 古銅器의 鐃, 鐘, 鉦 중에서 鐘을 모방하여 오늘날의 鐘의 조형이 비롯되었다는 說이며¹⁾, 또 다른 주장은 古代 中國의 鐘이나 鐃을 혼합한 형식에서 발전되었다고 하는 說이다.²⁾

梵鐘은 鐘의 일종으로서 지금은 佛教寺院의 四物(종, 범고, 운판, 목어) 중 대표적 法具로서 중생과 여러 생물의 깨달음을 촉진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교리와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다.

동양 삼국인 韓國, 中國, 日本에서 사용되어온 종은 외형상 유사한 점이 많으나 이 가운데 韓國의 鐘은 中國, 日本의 鐘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統一新羅 時代에 출현한 新羅鐘의 특징은 上院寺鐘(聖德王 24年, 725)과 奉德寺鐘(惠恭王 7年, 781)이 打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皇龍寺의 鐘에 대해서는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후원자, 鑄鐘 匠人, 鐘의 規模 등이 기록되어 있고, 鐘樓터가 發掘調査되어 있는 등 鑄成背景을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樣式論에 입각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한편³⁾, 이제까지

1)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p. 216.

2)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3) 기존 연구성과로는 坪井良平, 『韓國鐘』, (角川書店, 1974), 황수영,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81), 鄭明鎬, 「新羅梵鐘의 鑄造術에 대한 研究」 『고고미술』 162·163, 1984, 황수영, 「新羅의 梵鐘」, (『梵鐘』 No. 10, 1987),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등이 있으며 미술사, 금석학, 고고학, 공예사,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鑄成背景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梵鐘의 鑄成背景을 이해하려면 政治, 社會的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첫째, 新羅 中代王權에서 王位繼承 과정을 鐘의 鑄成背景과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鐘에 관계되는 寺刹의 성격 및 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의 政治的, 社會的 성격과 梵鐘의 鑄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관련지어 論述하고자 한다. 셋째, 鐘을 포함한 新羅樂器들의 쓰임새로부터 음악과 政治의 관계를 설정한 후, 鐘 鑄成의 政治的 意義를 새롭게 제시하려고 한다.

II. 新羅 中代の 梵鐘과 鐘樓

新羅는 A.D. 528年(법흥왕 15)에 佛教를 공인한 이후 王京 일원에 수많은 사찰을 건립함으로써 三國末에 이미 佛教寺刹로 장관을 이루었다. 즉, A.D. 565年(진흥왕 26年)에 이미 경주의 寺院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탑들은 기러기의 行列같다고 전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수의 佛教寺刹들이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⁴⁾ 그런데 이 시기까지는 아직 종을 만들지 않았던 듯, 유물도 전하지 않고 기록도 없으며 절터에 종루를 건립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이후 新羅는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하였고 佛教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시기 불교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鐘의 등장이다.

즉,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절터를 보면 金堂과 佛塔이 어우러져 형성하고 있는 중심 마당의 바로 앞쪽에 鐘樓와 經藏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佛經과 鐘을 동격으로 간주하여 神聖한 佛陀의 세계 안

4) 《三國遺事》 卷第3, 原宗興法 厭觸滅身條. “天壽(嘉) 六年, 陳使劉思並僧明觀, 奉內經並次, 寺寺星張, 塔塔雁行”

에 奉安하고 있는 이러한 배치법으로부터 그 시기 사람들이 鐘을 얼마나 신성시하였는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후에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종을 중심으로 그 현상과 형식 및 양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본 고대의 종과 비교하는 동시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鐘樓址의 현상과 가람배치상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종의 미술사적 의의와 불교적 의의가 어느정도 확인될 것이다.

1. 新羅 中代の 梵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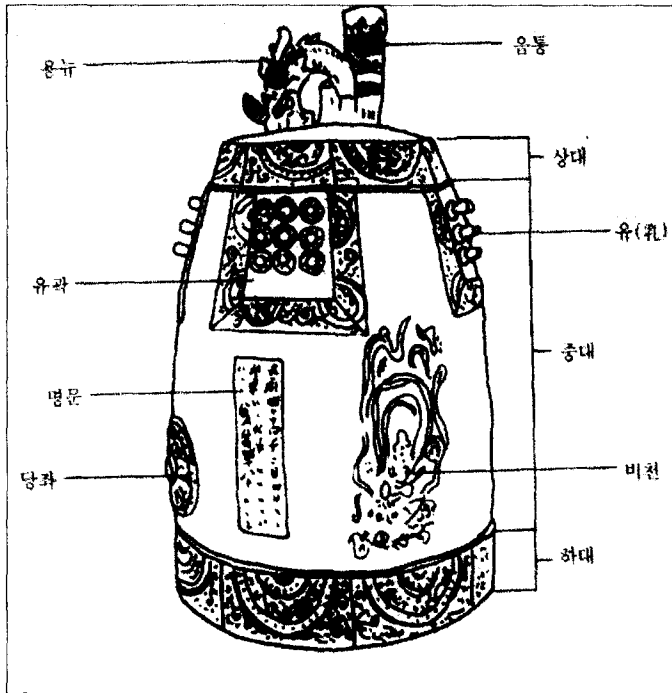
통일신라 당시에는 많은 종이 주성되었지만, 현존하는 新羅鐘은 11구에 불과하며 이를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 新羅鐘 現況>

王代	王 名	상태	國內新羅鐘	상태	在日新羅鐘
33代	聖德王(702~737)	완형	上院寺鐘(聖德王24年 : 725년)		
35代	景德王(742~765)	문헌	皇龍寺鐘(754년)(亡失)	日문헌	无盡寺鐘(亡失)
36代	惠恭王(765~780)	완형	奉德寺鐘(惠恭王 7년)		
40代	哀莊王(800~809)	대파	禪林院鐘(804년)		
42代	興德王(826~836)			완형	蓮池寺鐘(흥덕왕 8년 : 833년) (日本 佐賀)
46代	文聖王(839~857)			日문헌	竅興寺鐘(856년)(亡失)
52代	孝恭王(897~912)			완형	松山村大寺鐘(904년) (日本 字佐)
56代	敬順王(927~935)	완형	淸州出土新羅鐘(淸州博物館)	완형	光明寺鐘(日本 松江)
		대파	寶相寺鐘(東國大博物館)	완형	雲樹寺鐘(日本 島根)
		파편	東國大 有紋鐘 破片(東國大博物館)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93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上院寺鐘



위 표에서 정리한 11개의 종 가운데 여기서는 상원사종·황룡사종·봉덕사종 등 3구의 종을 대상으로 그 현상을 묘사하고자 한다. 단 황룡사종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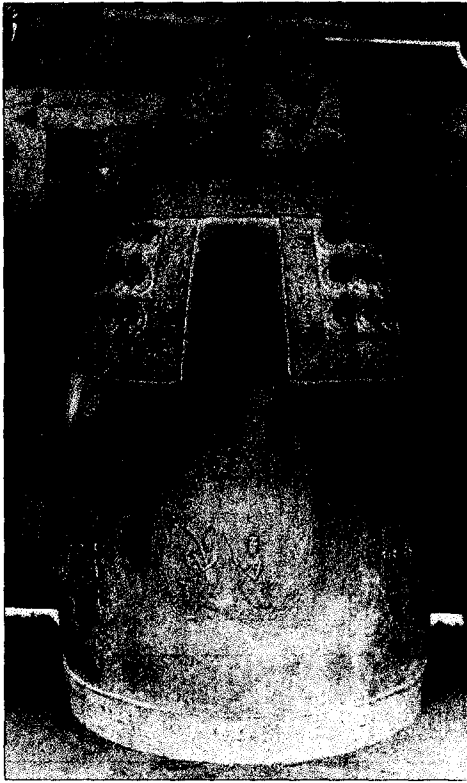
上院寺鐘은 강원도

도 1) 신라종의 세부명칭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上院寺에 있으며, 상원사는 五臺山 月精寺에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上院寺鐘은 口徑 903mm, 全高 1,670mm, 두께 48mm인 큰 종으로서 天板 위에 음각된 명문에 주성 연대, 중량, 주종 감독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上院寺鐘이 五臺山の 현 종각에 봉안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을 문헌기록을 토대로 살펴 보면⁵⁾, 첫째, 《月精寺略史》에는 新羅 聖德王代에 조성되어, 山內 眞如院에 봉안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둘째, 경북 안동의 지리지인 《永嘉誌》(卷 6)에는 안동 누문의 옛날 종을 1468년 (조선조의 세조 승하 직후인 睿宗 元年)에 上院寺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5) 황수영, 「五臺山 上院寺鐘의 搬移寺實」 『考古美術』



도 2) 상원사 종

셋째, 《朝鮮王朝實錄》에서도 上院寺鐘을 安東官鐘「樓門古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上院寺鐘은 新羅 聖德王때에 眞如院에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新羅가 망한 후 안동누각에 옮겨졌다가 五臺山 上院寺鐘으로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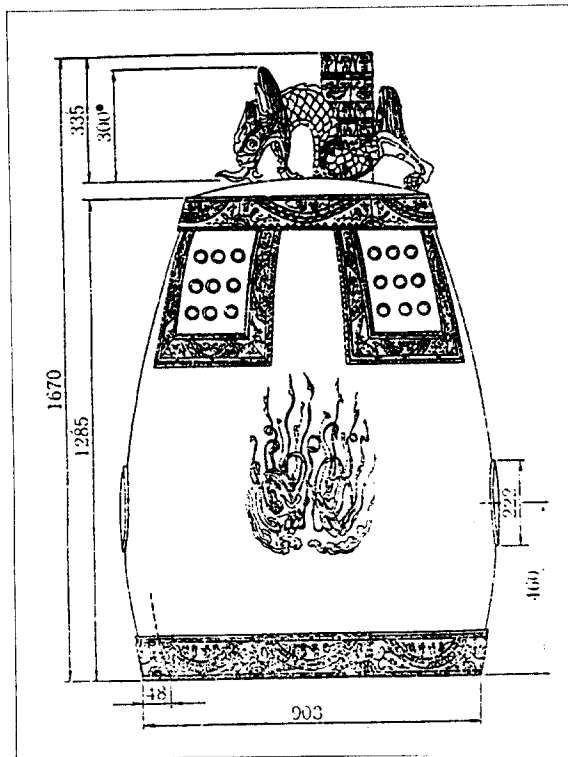
上院寺鐘은 아름다운 종소리와 문양미에 있어 현재 국내에서 최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옛 기록에서도 “鐘의 聲音이 웅장하여 百里遠聞의 名鐘이며 鐘身이 단정장중하고 彫縷의 우미아담함이 유례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⁶⁾ 현재도 종소리와

문양에 있어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天板의 龍頭 좌우측에는 각각 길이 약 240mm×폭 130mm의 사이에 음각 명문이 있다. 이 명문에 따르면, 新羅 聖德王 24년(725년) 3월에 鐘이 완성된 기록이 있다. 鐘의 중량 3,300鎰이고, 그 외에 주종 감독자, 시주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⁷⁾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鐘의 명문을 새긴 위치인데, 鐘 表面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上院寺鐘의 경우는 天板上에 있다. 鐘 표면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鐘上部에 陰刻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6) 《永嘉誌》卷 6



도 3) 상원사종 실측도면

이밖에도 안동에서 上院寺로
鐘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乳頭 1개
가 떨어져 나가는 전설, 그리고
6·25전쟁에 방한암 스님이 上院
寺鐘을 전화에서 구출했다는 구
전, 1979년 上院寺鐘의 균열을
용접한 일과 다시 타종할 수 있게
된 사연 등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종을 둘러싸고 전해지고 있다.

龍鈕는 종각에 鐘을 걸기 위
한 목적으로 鐘上部에 만드는데,
龍을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
이 언제부터였는지 뚜렷한 起源은
알 수 없으나, 韓國鐘에서는 龍장

식을 만들어 自重을 견디는 데 사용되고 있다.

龍鈕部는 몸체에 비하여 현저히 큰 龍頭, 놀란듯한 큰 눈, 오뚝 선 귀와
날카로운 뿔, 천지를 명동케 하려는 듯 크게 벌린 입, 昇天하려는 듯한 자세의
힘찬 발과 다리 등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 종의 音管은 높이 약 335mm이고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에는 약 75mm의 관통공이 있다. 외관상은 대나무 표면에 蓮寶相華紋을 수놓
은 느낌을 준다. 音管표면에 있는 문양은 일반 주조품에서 보기 힘든 細線들로

7) <上院寺鐘> 명문

開元十三年乙丑三月. 八日鍾成記之都合鑄. 三千三百銖□□普衆. 道唯乃孝□直歲道
直. 衆僧忠七冲安貞□. 且越有休大舍宅夫人. 休道里德香舍上安舍. 照南□匠□大舍.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걸작품이다. 이토록 문양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주조된 것은 밀납주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上帶에 사용한 地紋板은 상부 및 하부에는 蓮珠帶가 있고, 중앙에는 위쪽을 향한 半圓圈의 2중으로 된 꽃무늬 윤곽이 있다. 그 내부에 있는 반원권내에 2구의 奏樂하는 飛天像이 피리와 쟁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上帶에 있는 반원권의 바깥에는 당초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下帶는 지문판을 사용하여 10회 반복시킨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上帶와 유사한 수법으로 상하측에 연주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상측의 중앙에는 이중 꽃무늬 반원권 윤곽이 있으며, 그 내부에 주악비천 4구가 각각 취악기, 피리, 장고, 비파 등을 갖고 연주하고 있다. 下帶 반원권의 둘레에는 당초문양이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上帶의 문양과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乳廓은 乳廓帶와 그 内の 鐘乳群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院寺鐘의 乳廓에서 연꽃무늬 乳座 위에 돌출융기한 9개의 종유가 보여주는 입체미는 아주 아름답다. 또 乳廓帶는 양 옆과 아래쪽을 두르는 방식 즉, U字形으로 새겨져 있는데, 먼저 좌우측 乳廓帶에는 한복판에 꽃무늬 2중윤곽의 반원권이 있고, 그 내부에 각각 1구의 주악飛天像이 새겨져 있으며 반원권의 둘레는 당초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래쪽 乳廓帶 한복판의 반원권 안에는 笙과 腰鼓를 가진 2구의 주악飛天像이 배치되어 있고 그 둘레는 당초문양으로 이어져 있다.

撞座는 鐘의 앞뒤에 유곽과 같은 수직축선상에 각 1좌씩 2좌가 배치되어 있다. 중앙부에는 19개의 子房이 있고, 자방의 바깥에 2중륜과 수술이 있으며, 그 둘레를 複8엽의 연판이 둘러싸고 있다. 연주문대와 연주문대 사이에 지극히 섬세한 당초문양이 아름답게 장식 배치되어 있다.

飛天像은 撞座 좌우에 각각 배치되었는데 2인조의 雙奏樂 飛天像으로 구

름을 타고 천의를 휘날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비천을 감싸고 있는 천의는 가느다란 선으로 묘사되었는데 마치, 넝쿨풀이 감아 올라가듯이 휘돌아 올라가면서 서로 다른 자락을 감거나 둥근 고리를 형성하거나 하면서 꼬이고 구불거린다. 이 천의자락의 끝은 나팔꽃 모양으로 마무리짓고 있는데, 이것은 상승하는 비천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모양이다. 좌우 2인조로 된 이 비천상은 左 飛天像이 箏篋, 右 飛天像이 笙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종소리와 함께 음악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2) 皇龍寺鐘

皇龍寺鐘은 「皇龍寺大鐘」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新羅 최대의 鐘이었던 것이 분명하다.⁸⁾ 진흥왕 14年때 창건된 新羅 最大의 寺刹 皇龍寺에 景德王 13年(754年)에 와서야 비로소 鐘이 봉안되고 鐘樓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鐘의 높이가 一丈三尺(4,800mm)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奉德寺鐘보다 3척이나 더 컸음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입금중량이 奉德寺鐘은 12萬斤인데 비하여, 皇龍寺鐘은 이보다 약 4배 더 무거운 49만 7581근이나 되었다 하니 실로 거대한 鐘임을 알 수 있다. 만약 皇龍寺鐘이 현존하였다면 韓國鐘 중에서 최대이고, 아름다운 문양과 장중한 鐘聲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걸작품이었을 것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景德王으로부터 743년에 축출된 三毛夫人(金順貞의 女)이 皇龍寺鐘을 시주하였음이 전해진다. 이에 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8) 《三國遺事》卷3, 塔像 제4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條, “新羅 第三十九代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年 鑄黃龍寺鐘 長一丈三尺 厚九寸 入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3) 奉德寺鐘(聖德大王神鐘)



도 4)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

奉德寺鐘은 현재 國立慶州博物館에 보존되어 있으며 國寶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原名은 ‘聖德大王神鐘’, 속명은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며, ‘新羅의 美’하면 가장 먼저 이 鐘을 연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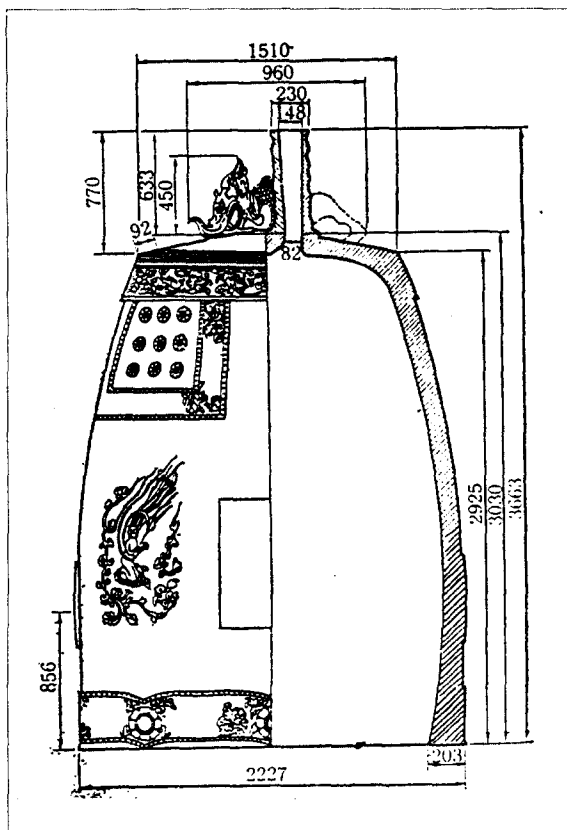
奉德寺는 慶尙北道 慶州 北川 부근에 있었던 寺刹로 聖德王이 太宗武烈王을 위하여 이 절을 창건하고 仁王道場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덕왕이 승하한 후 孝成王 2年(738年)에 先考 聖德王의 명복을 기원하는 寺刹로 창건되었으리라는 기록이 동시에 전한다.⁹⁾ 景德王 代에 이르러 성덕왕

의 명복을 받들려는 효성에서 銅(청동) 12萬斤을 모아 주종 사업을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고 아들 惠恭王이 부업을 이어 同王 7年(771年)에 鐘의 완성을 보았다. 鐘에 새긴 명문에서도 景德王이 한 길 높이의 종 하나를 주조하려고 뜻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다.¹⁰⁾

명문에는 聖德王의 공덕을 찬양하고, 寺名도 奉德이며, 정확한 사원 창건 연대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奉德寺는 孝成王代의 創寺인 것을 알 수 있다. 王家

9) 『三國遺事』 기이편 성덕왕 條

10) 「欲鑄一丈鐘一口 立志未成」



도 5) 봉덕사종 실측 도면

의 願刹이자 成典寺院이었음을 감안하고 나아가서 성덕대왕신종을 봉안할만큼 중요한 절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봉덕사의 寺格과 寺勢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奉德寺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불행히도 홍수의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 全伽藍이 일시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며 鐘만이 남아 있다가 朝鮮朝 世祖 6년(1460년)에 인근의 靈廟寺로 옮겨졌다고 한다.¹¹⁾ 그러나 靈廟寺 역시 화재로 전소되자 조선조 중종 초년(元年 내지 2년)에 당시 府尹 芮椿年이 경주읍성으로 옮겨

간 이후 門鐘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²⁾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봉황대로 옮겨졌는데, 1915년 8월 경주고적보존회에서는 鐘과 종각을 鳳凰臺에서 舊慶州博物館으로 이전하였다.¹³⁾

771년에 鑄成된 奉德寺鐘은 口徑 2,227mm, 全高 3,663mm, 두께 203mm, 音管高 648mm의 巨鐘이다.

11)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1460년 당시 경주 부윤을 지낸 金淡이 이 鐘을 영묘사 옆에 달아 징병에 쓰게하였다고 한다.

12) 『동경잡기』에 의하면 이 당시 奉德寺鐘은 성문 개폐와 정오 시간을 알리는 門鐘으로 사용되었다.

13) 舊慶州博物館은 현 경주문화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구성을 보면 龍鈕部와 音管, 上帶, 下帶, 乳廓, 撞座, 飛天像 등 上院寺鐘과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보인다. 다만 아랫쪽 구연부가 八陵으로 되어 있는 점이 상원사 종과는 크게 다른 특징으로 혹자는 中國鐘의 양식을 이 중에 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龍鈕는 單龍으로 되어 있고 정상부 天板상에 인접하여 큰 입을 벌린 채로 아래를 보고 있다. 종체가 크므로 이에 비례하여 龍頭도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龍鈕部를 구성하는 현가에서 용의 발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上院寺鐘에서는 좌측발이 뒤로 버티고, 우측발이 전방 우측에 버티고 있으나, 奉德寺鐘에서는 우측발이 뒤쪽으로 버티고, 좌측발은 전방좌측에 버티고 있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나 龍의 전체적인 자세라든가 조각의 힘과 기가 넘치는 표현에서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 龍頭는 天板 중앙에 놓여 있고 길이 960mm, 높이 360mm인데 다른 龍頭 주위에는 연판을 방사상으로 새긴 圓形「龍鈕座」문양(지름 670mm)이 있어 다른 新羅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이한 장식을 가진 실례에 속한다.

音管은 외구경 230mm, 외부 높이 648mm의 원통형으로 표면에는 3節과 1/2節로 변조된 瓣紋이 맞대어 있다. 즉, 音管을 구성하고 있는 연판은 上向蓮瓣과 下向蓮瓣으로 각 절마다 원주가 드문드문 양각되어 있으며 모두 4단의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新羅鐘 중에서는 奉德寺鐘과 在日 蓮池寺鐘만이 龍頭와 音管을 함께 돌린 연화문 音管座가 있고 高麗鐘에도 극히 소수의 예가 있다.

한편 上院寺鐘에는 天板 주변에 아무런 문양이 없었으나, 奉德寺鐘의 천판에는 연판 34매(한 잎의 크기 120mm)로서 주연을 장식한 「肩帶」를 구성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건대 장식은 新羅鐘 중에서는 奉德寺鐘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高麗時代 前期의 鐘에서는 天興寺鐘 등 많은 鐘에서 건대를 볼 수 있다.

鐘身 上部의 上帶는 외측의 폭 280mm 이고, 윗쪽 2개의 二重條線으로 외선을 만들었고, 아래쪽은 2개의 단선내에 연주를 배치한 연주문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上帶內部는 폭 212mm의 寶相華紋으로 아름답게 陽刻되어 있다. 下帶는 韓國鐘에서는 희귀한 예로서 완만한 八陵形으로 되어 있고, 그 폭은 약 302mm(1 尺)이다.

奉德寺鐘의 구연을 형성하는 下帶의 위아래에는 연주문대가 있고 내부 가운데 8개의 능부 중앙에는 연화문(직경 223mm)이 각각 1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는 아름다운 寶相華紋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寶相華紋은 당시 新羅의 예술 수준이 최고도에 달해 있었고, 주형용 모형인 지문판 제작기술과 청동공예기술이 전성기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撞座는 용뉴의 龍頭 方向을 좌우로 놓을 때 鐘의 앞뒤쪽에 각각 1좌씩 2개소에 배치되어 있다. 撞座의 중심높이는 종구 첨단에서부터 856mm이고, 撞座의 직경은 약 520~540mm(약 530mm)이다. 다만 당좌의 테두리선은 변형된 원형을 갖고 있다. 奉德寺鐘의 撞座는 8엽으로 된 闊瓣寶相華紋을 2중으로 겹친 형식을 보인다. 撞座 중앙부에는 자방이 8顆가 배치되어 있다.

新羅鐘의 撞座 중에는 上院寺鐘이나 청주박물관 소장 新羅鐘처럼 테두리가 圓輪 形狀을 한 것과 奉德寺鐘처럼 연화문형인 것 등 2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 원형 윤곽이 더 많다.

이 鐘의 飛天像은 上院寺鐘의 飛天과는 달리 우아한 이상주의가 후퇴하는 감으로 이른바 현실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느낄 수 있지만, 세련되고 탄력

있는 난숙한 기량은 그대로 보이고 있다.¹⁴⁾

銘文은 종북의 좌우측에 陽刻되어 있는데 「序」와 「詞」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聖德王은 政治면에서 권위와 덕망이 높고 국민은 본업에 힘쓰며 40여년의 선정으로 문화가 융성하였으므로 세상에 성군이라는 명성이 빛났다.

2) 景德王은 동 12만근을 희사하여 一丈(10尺)거종을 만들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3) 景德王의 後妃인 滿月婦人이 부군의 소원을 받들어 有司들에게는 모든 공사준비를 분부하고, 工匠에게 모형을 뜨게 하니 해는 辛亥(신해)요, 달은 12월이다.(771년)

4) 현재의 우리 성군(惠恭王을 말함)은 祖宗의 뜻을 받들어 이치에 맞는 政治에 대한 형세를 명기하였다.

14) 文明大, 『韓國彫刻史』, 열화당, 1989, pp 208~210.

2. 日本 古代의 鐘

日本鐘은 전체의 구성은 물론이고 각 부분의 형식에서도 신라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문양에서만큼은 신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형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주종기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挽型法이라는 주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범종 斷面을 半切한 板을 만들고 이것을 外形속에 돌려서 범종 겉면 모습과 上帶, 中帶, 下帶의 위치를 잡는 기법이다.

挽型法은 같은 挽板을 사용하기 때문에 妙心寺 鐘과 觀世音寺 鐘과 같은 외형이 동일한 兄弟鐘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신라는 蠟型法으로 주조하여 精緻한 문양을 표현하기 쉬었던 것이다. 성덕대왕신종과 같은 거대한 범종의 경우 鑄型은 下型, 中型, 上型の 3단 조립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¹⁵⁾ 연화문 등의 문양에서는 점토를 손으로 빚은 듯한 塑造의 표현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蠟型法만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日本の 梵鐘(和鐘)은 가장 오래된 妙心寺鐘(698年)을 시작으로 많은 梵鐘들이 현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필자는 坪井良平¹⁶⁾이 설정한 시기구분에 따라 飛鳥·奈良까지의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飛鳥時代의 梵鐘

이 시대에 속한 現存 鐘으로는 妙心寺鐘, 觀世音寺鐘, 當麻寺鐘, 法隆寺西院鐘, 또 이 시기로 짐작되는 大峰山寺鐘까지 5個鐘이 있다. 飛鳥時代 鐘의 양

15) 李榮培, 「聖德大王神鐘의 鑄成技法에 關한 考察」, 『성덕대왕신종』 제2회 國際學術大會, 199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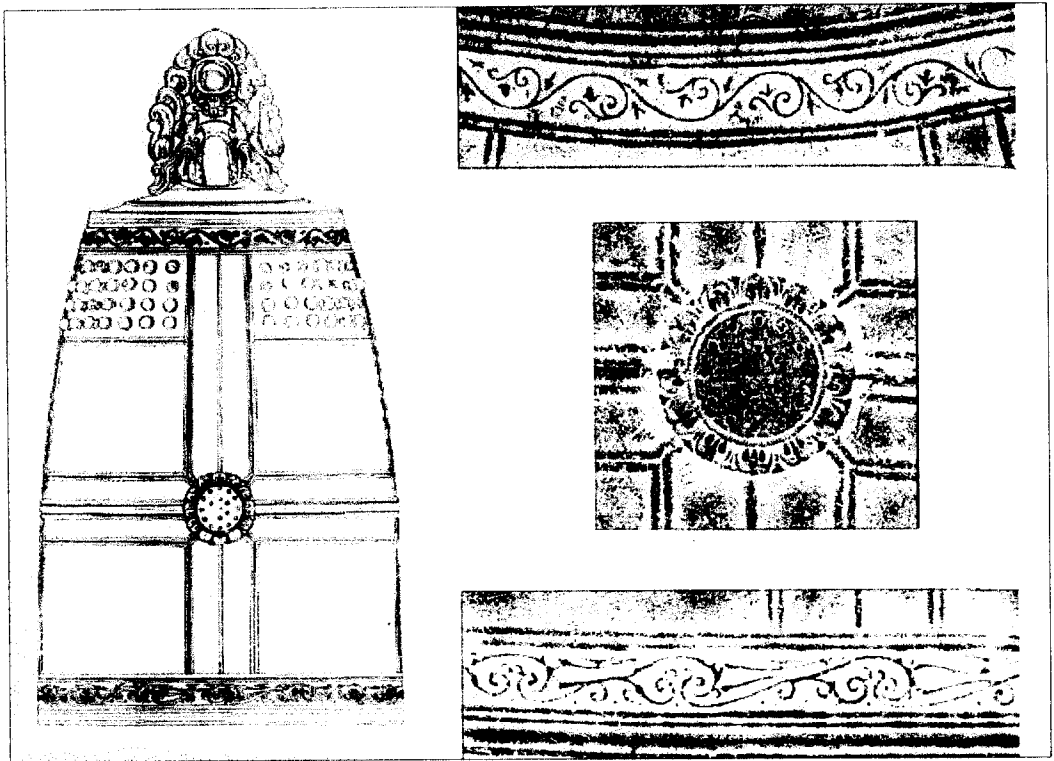
식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法隆寺西院鐘을 제외한 4個鐘은 모두가 口徑에 비해 전체높이가 높고 가늘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 撞座의 위치가 높은 것으로, 撞座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점차 내려오는 경향을 보인다. 飛鳥時代・奈良時代의 梵鐘에서는 鐘身의 아래에서 1/3부분에 위치한다.

셋째, 鐘의 上帶와 下帶에 문양이 있는 것으로 특히 上帶에 鋸齒文이 있는 것은 當麻寺鐘과 大峰山寺鐘으로 二鐘만 있다.

① 妙心寺鐘과 觀世音寺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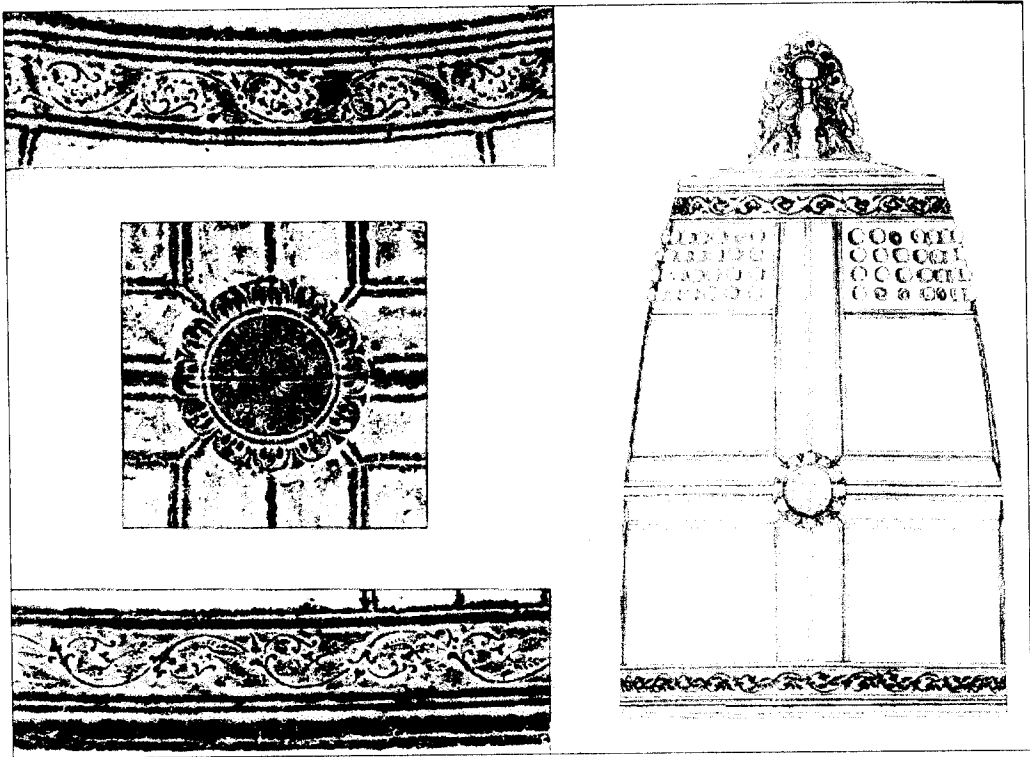
도 6) 觀世音寺鐘의 탁본

年代를 아는 最古의 梵鐘은 文武天皇2年(698)의 銘文을 가진 妙心寺鐘이다. 크기와 형태가 닮아 兄弟鐘이라고 불리는 觀世音寺鐘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妙心寺는 花園天皇(1297-1348)이 離宮을 寺로 했다고 전해지는 臨濟宗의 大本山에 위치한다. 당연히 妙心寺鐘은 원래 이 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觀世音寺鐘은 지금도 觀世音寺(이 절은 天智天皇의 發願으로 天平十八年(746)에 完成되었다.)에 있고, 鐘樓에 걸려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볼 수 있다.

觀世音寺는 東大寺·下野藥師寺와 나란히 天下의 三戒壇(중이 계율을 받는 단)으로 칭해진다. 大宰府에 流配되었던 寬原道眞이 유배지에서 들었던 「都府樓鐘」은 이 梵鐘이다.

도 7) 妙心寺鐘의 탁본



妙心寺鐘과 觀世音寺鐘은 兄弟鐘이라 불리면서 京都와 太宰府에 떨어져 있어 이 소리까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데 1984년 福岡縣 太宰府市에 있는 福岡縣立九州歴史資料館에서 開館 10周年을 기념하는 특별전 『國寶觀世音寺鐘・妙心寺鐘と その 時代』가 개최되었다. 이 특별전에서 아마도 最初이자 最後가 될 형제종의 만남이 실현되었다. 이때에 상세한 조사가 행해져 사진촬영과 사진측량에 의한 상세한 실측도를 작성되었다. 누구나 한번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종은 笠形以下の形과 撞座・上帶・中帶・下待의 배치가 전부 일치하였다. 반면, 龍頭의 크기와 上帶와 下帶의 문양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형제종의 존재는 梵鐘을 만드는 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妙心寺鐘의 內面에는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다.

「戊戌年四月十三日壬寅收粕屋評造春米連廣國鑄鐘」

「戊戌年 文武天皇2年(698)의 4월13일에 현재의 福岡縣 粕屋郡에 있던 評の長官, 春米連廣國이 鐘을 주조했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廣國이 鐘을 鑄造한 사람 즉 주물사인지는, 종을 주조시켰던 사람인 壇越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떠한 妙心寺鐘의 제작이 九州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觀世音寺鐘에 銘文은 없지만 笠形の 上面에 「天滿」, 鐘身の 下面에 「上三毛」의 線刻이 있다. 특히, 上三毛의 線刻은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의 福岡縣 築上郡太平村에 해당하는 古代의 郡名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변에는 新羅系의 瓦를 출토한 垂水廢寺와 天台寺 흔적이 있다. 이 新羅系 瓦의 문양은 두 鐘의 撞座와 上帶·下帶 문양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銘文과 文樣의 특징으로 보아 이 두 鐘은 北部 九州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鐘의 제작에 豊前地方에 있던 新羅系의 渡來人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豊前地方은 古代以來의 銅의 産地로 유명했으며 梵鐘鑄造의 條件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외에 『日本書記』 天武天皇十一年(683), 筑紫太宰丹比眞人嶋等이 大鐘을 받쳤다는 記事로 7세기 後半代에는 적어도 세 개의 鐘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當麻寺鐘과 大峰山寺鐘

앞의 두 鐘보다 좀더 시대를 올려 볼 수 있는 梵鐘으로는 奈良縣 當麻寺 鐘이 있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이고, 上下로 배치된 唐草文樣도 古樣式을 지닌다. 當麻寺의 창건연대인 天武十年(682)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當麻寺鐘과 유사한 鐘으로 大峰山寺鐘이 있는데 奈良縣 大峰山정상에 선 大峰山寺 本堂에 있다. 이 鐘도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로, 當麻寺鐘과 동일하게도 上帶에 下向한 삼각형을 연속적으로 새긴 鋸齒文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天慶七年(944)에 鑄鐘 후 200년 이상이나 후에 새겨진 銘文(後銘)이 있다. 銘文에 의하면 이 鐘은 遠江國佐野郡原田郷, 지금의 靜岡縣掛川市の 長福寺의 鐘이었다. 『遠江國風土記傳』에 의하면 長曆元年(1037), 長福寺에 묵었던 修驗者가 이 鐘을 가지고 왔다고 전한다. 정확한 이동시기는 알 수 없지만 멀리 靜岡縣에서 大峰山の 山頂까지 수백킬로되는 山頂까지 가지고 오른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③ 法隆寺의 鐘

전술한 4個의 鐘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鐘이 하나 더 있는데 法隆寺西院鐘이다. 이 범종은 당좌의 문양이 기존의 당좌문양과 차이점을 보여 유명하다. 보통의 撞座는 蓮花文이라 불리는 연꽃을 위에서 본 모습을 문양화한데 반하여, 西院鐘에서는 蓮花華卉의 주위를 鋸齒文이라 불리는 삼각형을 연속한 문양이 둘러싸고 있다.

法隆寺에는 오래된 東院鐘이 또 하나 있는데, 西院鐘보다는 오래되지 않았고, 東大寺鐘 등 과 유사해 높이에 비해 口徑이 큰 육중한 형을 하고 있다. 양식상으로 보아 奈良時代に 들어와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범종은 원래 中宮寺의 것으로 池間に 「中宮寺」의 陰刻이 있다.

2) 奈良時代の 梵鐘

平城京으로 수도가 옮겨진 710년부터 長岡京으로 遷都한 784년까지의 74

년간이 奈良時代이다. 銘文이 있는 鐘이 3鐘, 銘文이 없는 鐘이 11鐘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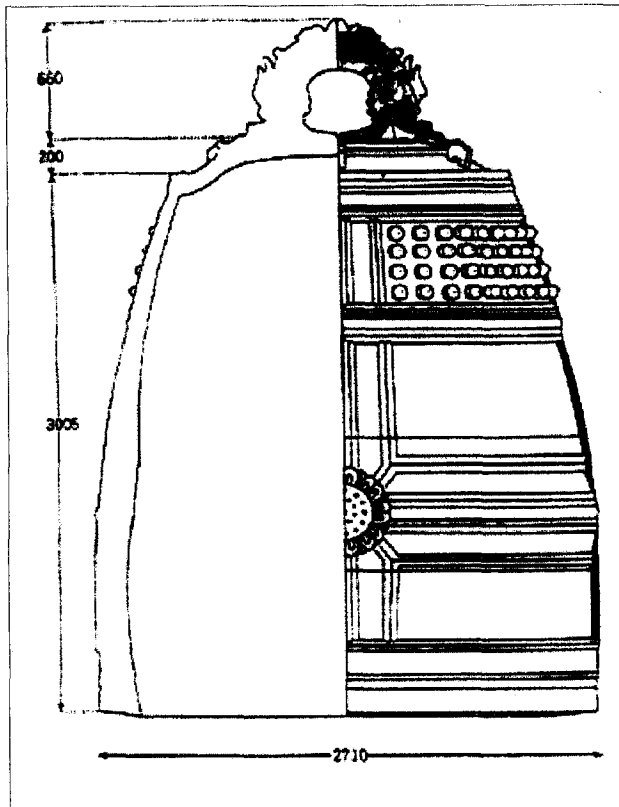
이 시대의 鐘은 통일적인 시대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변화가 풍부한 까닭으로, 예를 들면 銘文이 있는 鐘의 銘文은 興福寺鐘이 縱帶에, 劍神社鐘이 草間에, 成田市出土鐘이 池間에 記載되어 있다. 後代에는 池間에 대개 명문의 기재 부위가 통일되어 일정하지 않으며, 큰 鐘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① 東大寺의 梵鐘

東大寺의 梵鐘은 구경 2.71m, 높이 3.86m, 무게 약 28t의 巨鐘이다. 大阪市 四天王寺에 있던 鐘이 그것이다. 여기에 구경 4.8m, 높이 7.9m, 총중량 158t이란 日本 最大の 梵鐘이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國家總動員法에 따라 金屬供出이 있어 戰時物資로 녹여 다시 주조해 버렸다.

이 梵鐘은 큰 몸으로 묵직한 인상을 준다. 龍頭에는 다른 梵鐘에 보여지는 것 같은 크고 소용돌이치는 화염의 장식은 없고, 크게 입을 벌린 笠型の 龍은 双頭를 가늘고 긴 목으로 연결하고, 목의 중앙에는 宝珠가 붙어 있다. 비슷한 形の 龍頭는 奈良市 藥師寺鐘, 滋賀縣 園城寺鐘, 法隆寺東院鐘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특징적인 龍頭는 그 후에도 만들어져 平安時代 前期에는 愛知縣 三河國分寺鐘, 奈良縣 榮山寺에서 볼 수 있고, 平安時代 後期에는 奈良縣 廢世尊寺鐘, 同玉置神社鐘에서 볼 수 있다. 龍頭的 특징을 같이 하는 梵鐘은 같은 系統의 주물사의 작품은 아닐까 생각한다.

龍頭的 특징은 平安時代 이후의 梵鐘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大和鑄物師들은 造東大寺司鑄所 解體後에도 大和에서 梵鐘을 계속 만들었을 것이다. 11세기 후반의 梵鐘의 기록에도 大和鑄物師의 이름이 보여진다. 그



도 8) 東大寺鐘 실측도면

후 12세기 후반까지 그들의 활동을 더듬어 볼 수 있다.

② 興福寺鐘과 新藥師寺鐘

興福寺는 藤原氏の 氏寺로 奈良時代 초기에 창건되었다. 神龜 4年(727)의 銘文이 있는 梵鐘으로, 銘文이 있는 鐘들중 妙心寺鐘에 이어 日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梵鐘이다. 또 銘文은 없지만 이 興福寺鐘과 龍頭의 意匠・全体의 형태 등이 꼭 닮은 梵鐘이 新藥師寺鐘이다.

新藥師寺는 天平19年(747)에 聖武天皇의 眼病平癒를 위해, 光明皇后가 行基에게 명해 건립하게 한 절이다. 新藥師寺를 건립한 行基는 민간의 포교승으로 다수의 토목공사와 造寺에서 활약한 후, 官의 인정받아, 大佛 建立 등에도 협력하였다. 新藥師寺鐘은 行基가 거느리고 있던 鑄物師가 만든 것일 것이다.

3. 新羅 中代 梵鐘의 양식고찰

新羅鐘의 구성형식에서 파악된 공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鐘의 정상에는 龍鈕와 音管이 있다.

둘째, 龍鈕는 單龍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 2개의 前肢를 갖추고 있다.

셋째, 鐘肩과 口緣에 文樣帶가 있다.

넷째, 乳廓은 4개인데, 높이는 종신 높이의 4분의 1이며 위치는 종견 밑에 붙인다.

다섯째, 乳廓 안에는 乳가 9개씩 있어 모두 36乳이다.

여섯째, 종신에는 넓은 공간을 남겨 그곳에 飛天像(또는 菩薩像)과 撞座가 상대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고려시대까지 계속 지켜져서 기본형식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형식을 갖춘 鐘을 <韓國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정상부(용뉴·음관·천판)와 鐘身部(상대·하대·유곽·당좌·비천상)로 나누어 각 부분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정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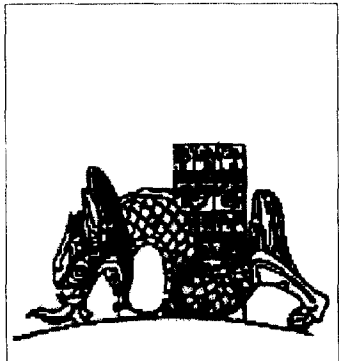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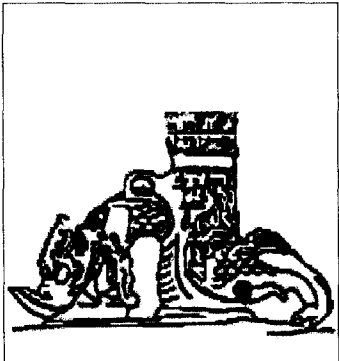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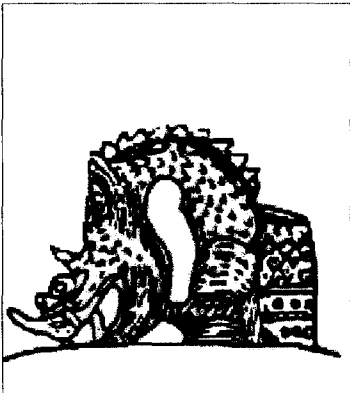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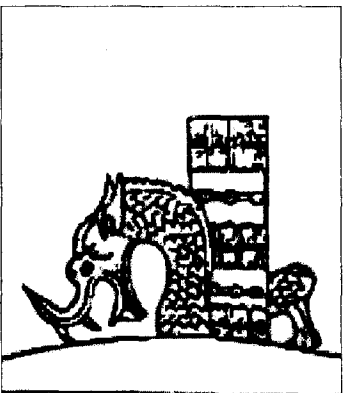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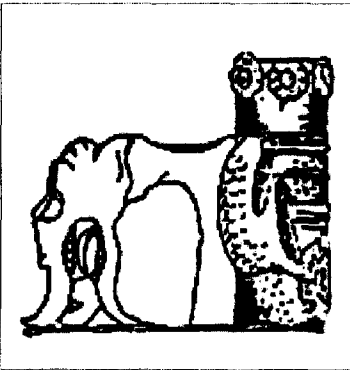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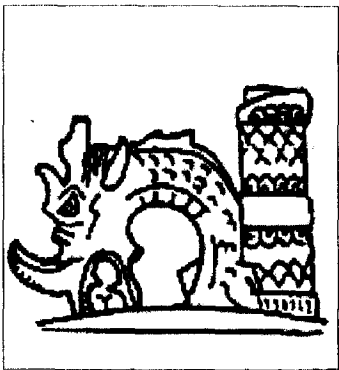
① 龍鈕 및 音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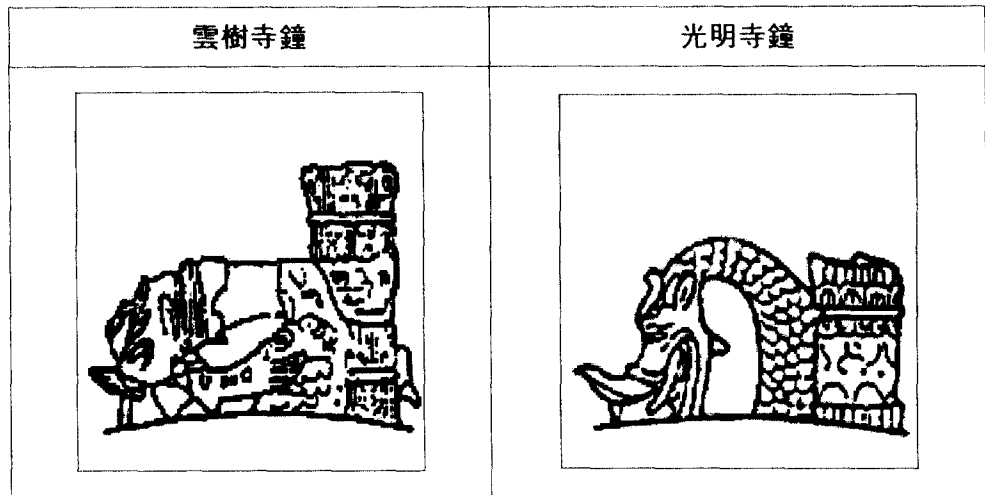
신라종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鐘 정상부의 單龍과 音管을 꼽을 수 있다. 西洋鐘은 물론이고 中國鐘이나 日本鐘에서도 單龍으로 된 龍鈕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龍은 어느 경우에도 큰 입을 벌리고 天板상의 여의주를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듯한 표정과 놀란 표정을 하고 있으며,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新羅 말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용의 활기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音管은 新羅鐘의 특징인 韓國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音管은 어느 것이나 대나무 마디에 꽃무늬를 장식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韓國鐘 고유의 특색이다. (표2. 新羅鐘의 龍鈕와 音管.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羅鐘 중에서 龍頭가 原形을 가지고 있는 것은 奉德寺鐘과 在日 松山村大寺鐘뿐이고, 약간 파손되었으나 완전한 형상에 가까운 것은 上院寺鐘, 청주박물관 소장 鐘 및 在日 光明寺鐘이다. 그리고 在日 蓮池寺鐘과 雲樹寺鐘은 많이 손상되었으며, 禪林院鐘은 龍頭와 音管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들 新羅鐘 중에서 奉德寺鐘 및 蓮池寺鐘의 龍鈕와 音管은 天板상에 龍鈕座 및 音管座의 문양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丑 2. 新羅鐘의 龍鈕와 音管

上院寺鐘	奉德寺鐘
	
淸州(博)新羅鐘	禪林院鐘
	
蓮池寺鐘	松山村大寺鐘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2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② 天板

新羅鐘의 天板은 약간 높은 圓弧形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고려시대에는 정상부의 天板이 평면 또는 평면에 가까운 원호형으로 변하고, 다시 조선시대에는 고려종형상과 中國鐘의 天板을 모방한 半珠形이나 圓弧를 한 것으로 변천하게 된다.

2) 종신부

① 上帶 및 下帶

上帶와 下帶의 문양은 서로 다르나 유사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上帶와 下帶의 문양이 전혀 다른 경우는 雲樹寺鐘과 光明寺鐘의 2구뿐이다. 또한 新羅鐘에서 上帶에 半圓圈紋樣을 배치한 鐘으로는 上院寺鐘, 禪林院鐘, 松山村大寺鐘의 3구가 있고, 下帶에 반원권 문양을 가진 鐘은 上院寺鐘, 松山村大寺鐘, 雲樹寺鐘, 光明寺鐘 등 4구가 있으므로 1/2 이상의 종에 반원권문양이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박물관소장 新羅鐘은 上帶 및 下帶에 전혀 문양장식이 없는 유일한 鐘이며, 上帶 또는 下帶에 반원권문양이 전혀 없는 예로 奉德寺鐘, 청주박물관소장 鐘, 蓮池寺鐘이 있다. 이로써 奉德寺鐘과 蓮池寺鐘을 제외한 모든 鐘에는 乳廓帶에 반원권문양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원권문양은 新羅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반원권문양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화문을 많이 새겼으며 그 외에 당초문, 파문, 운문 등을 새기기도 하였다.

표 3. 新羅鐘의 上帶·下帶 및 乳廓帶 紋樣

鐘 名	上帶		下帶		乳廓帶	
	半圓圈文	其他 紋樣	半圓圈文	其他 紋樣	半圓圈文	其他 紋樣
上院寺鐘	上向	—	上向	—	○	—
奉德寺鐘	—	寶相華紋	—	寶相華紋	—	寶相華紋
淸州(博)新羅鐘	—	素紋	—	素紋	○	—
禪林院鐘	下向	—	—	坐佛紋	○	—
蓮池寺鐘	—	波紋	—	波紋	—	寶相華紋
松山村大寺鐘	上向	—	上向	—	○	—
雲樹寺鐘	—	飛天雲紋	上向	—	○	—
光明寺鐘	—	唐草紋	下向	—	○混成	—

※ ○표는 해당 紋樣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4의 표를 옮겨 실음.

② 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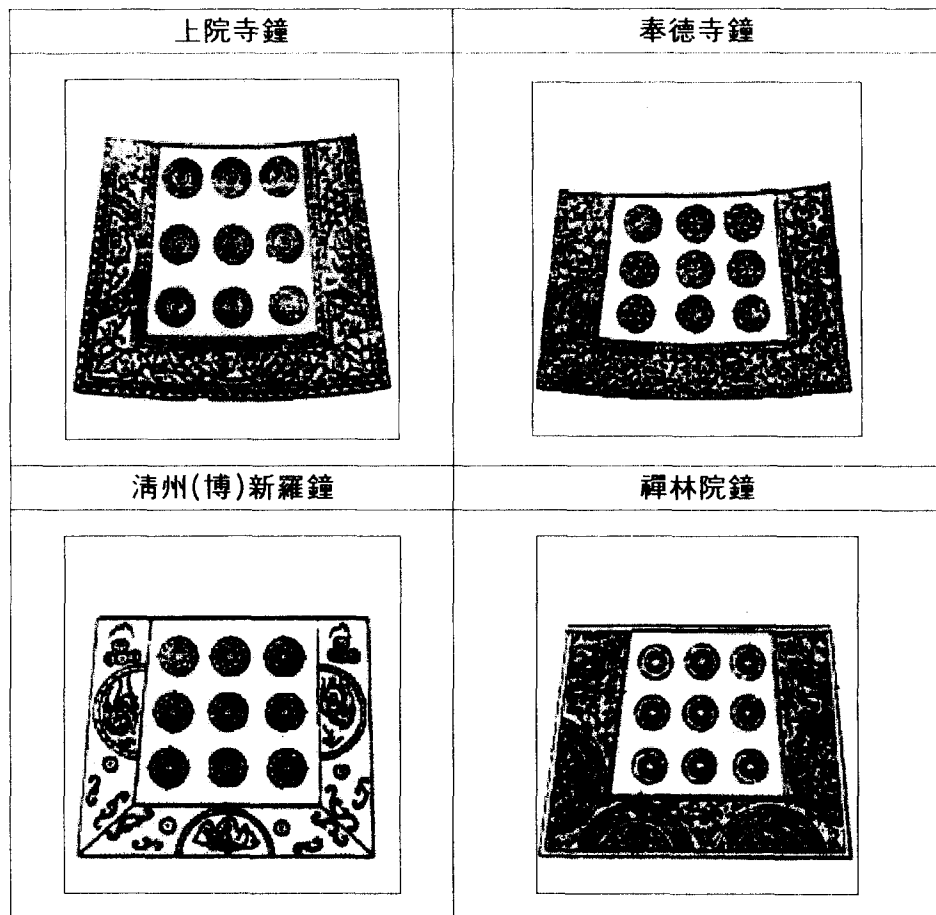
ㄱ. 乳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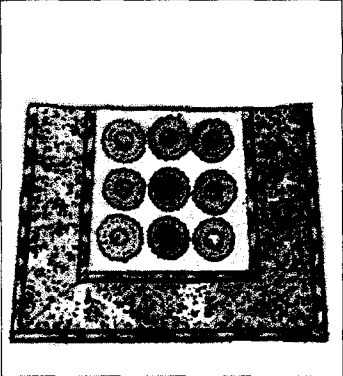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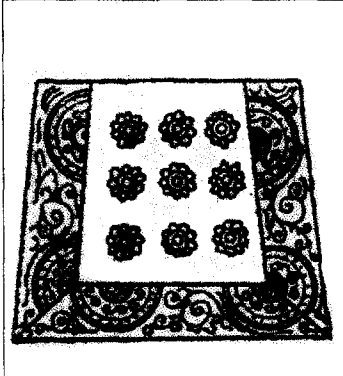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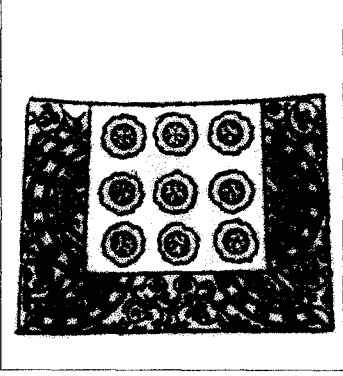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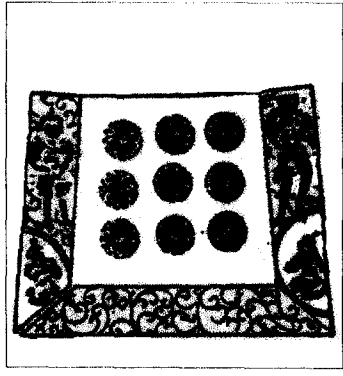
乳廓은 전부 上帶에 인접하여 각 鐘마다 乳廓 4좌씩을 가지고 있다. 乳廓의 위치는 鐘의 전후방향에 대하여 $\pm 45^\circ$ (대각선 방향)에 배치된 형과 전후 및 좌우에 배치된 형이 있는데 그 중 蓮池寺 鐘만이 新羅鐘 중에서 후자에 속

하며, 나머지는 전부 전자에 속한다.

乳廓帶는 전부 사다리꼴 모양을 함으로써 종표면의 만곡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폭은 等幅으로 된 것이 가장 많다. 그러나 上院寺鐘과 禪林院鐘은 乳廓帶의 폭이 좁고, 하부는 종의 둘레 치수에 비례하여 넓어진 형식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乳廓帶의 장식은 上帶 또는 下帶에 새겨진 문양과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 4>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乳廓문양이 어느 하나 같은 것 없이 전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韓國鐘의 특색중의 하나이다.

<표 4. 新羅鐘의 乳廓紋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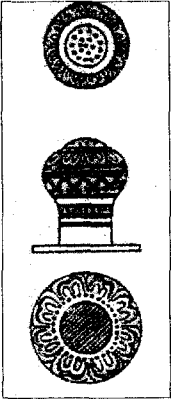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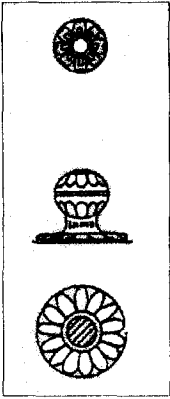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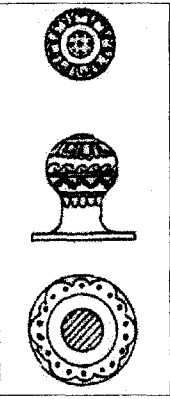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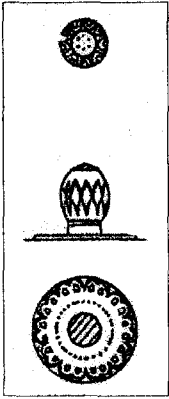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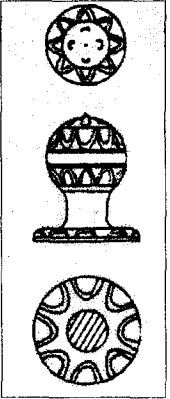


蓮池寺鐘	松山村大寺鐘
	
雲樹寺鐘	光明寺鐘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5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신라종에는 예외없이 유곽 내부에 9乳가 배치되어 있는데, 유의 형태에 2종류가 있다. 즉, 奉德寺鐘은 平乳인데 반하여 上院寺鐘과 청주박물관 소장 新羅鐘 및 禪林院鐘 등은 돌출형 乳頭로 되어있어 대조적이다. 한편 在日 新羅鐘 중에서는 雲樹寺鐘과 光明寺鐘의 乳頭가 平乳로서 奉德寺鐘과 동일하고, 蓮池寺鐘과 松山村大寺鐘은 上院寺鐘과 동일한 융기돌출형 乳頭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新羅鐘의 乳頭는 平乳와 隆起突出形의 2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新羅鐘의 隆起突出 乳頭와 乳座>

				
上院寺鐘	清州(博)新羅鐘	禪林院鐘	蓮池寺鐘	松山村大寺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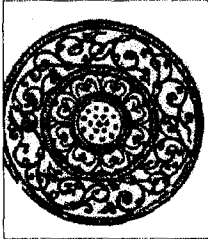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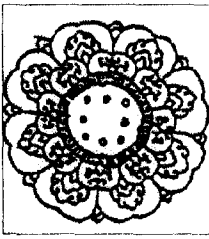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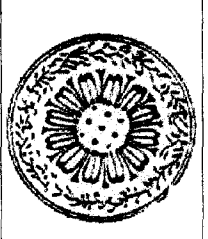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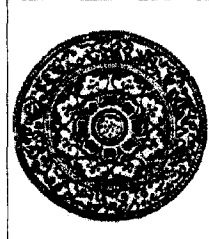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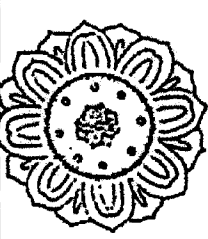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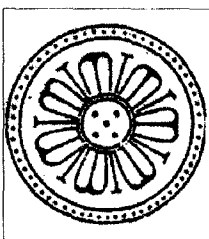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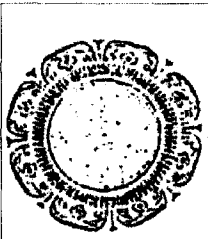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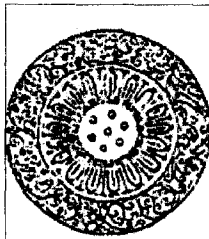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5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ㄴ. 撞座

撞座는 蓮花紋撞座와 圓形撞座로 구분된다. 圓形撞座는 上院寺鐘, 청주박물관 소장 鐘, 禪林院鐘, 實相寺鐘, 松山村大寺鐘, 光明寺鐘 등에서 보이며 蓮花紋撞座는 奉德寺鐘, 蓮池寺鐘, 雲樹寺鐘 등에서 보인다.

國內 新羅鐘 중에서 上院寺鐘, 청주박물관 소장 新羅鐘, 禪林院鐘, 實相寺鐘들은 撞座外部에 圓形 輪廓을 갖고 있으나, 奉德寺鐘은 원형윤곽을 갖고 있지 않고, 연화문으로 되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在日 新羅鐘 중에 奉德寺鐘과 유사한 형식의 撞座를 가진 것에는 蓮池寺 鐘과 雲樹寺 鐘이 있다. 그러므로 新羅鐘의 撞座紋樣 형식에는 두가지 형식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新羅鐘의 撞座>

上院寺鐘	奉德寺鐘	淸州(博)新羅鐘	禪林院鐘
			
蓮池寺鐘	松山村大寺鐘	雲樹寺鐘	光明寺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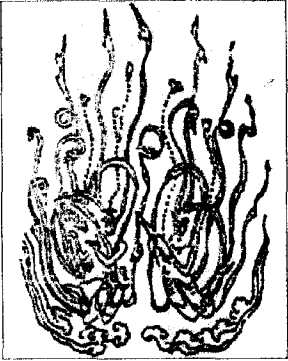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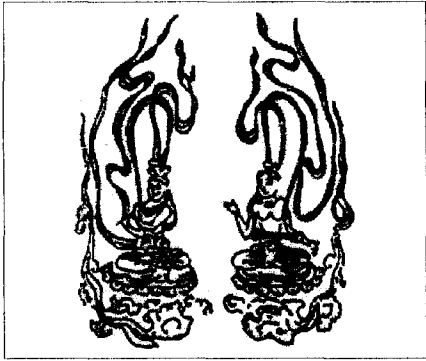
* 이 표는 엄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7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ㄷ. 飛天像

新羅鐘은 전부 雲上에서 天衣를 휘날리는 천사의 모습을 연상케하는 飛天像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飛天像들은 악기를 갖고 주악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奉德寺鐘의 飛天像만은 聖德王의 명복을 기원하는 願刹의 神鐘이므로, 악기대신 불공드리는 供養飛天像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奉德寺鐘만이 飛天像이 4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다른 鐘들은 2개소에만 있다.

新羅鐘의 飛天像 중에서 청주박물관 소장 新羅鐘과 在日 光明寺 鐘이 수법이 동일하고, 또한 형상도 대단히 비슷하여 동일한 匠人 또는 동일한 模本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7. 新羅鐘의 飛天像>

上院寺鐘	奉德寺鐘	淸州(博)新羅鐘	
			
禪林院鐘		實相寺鐘	
			
蓮池寺鐘	松山村大寺鐘	雲樹寺鐘	光明寺鐘
			

* 이 표는 염영하,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8의 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ㄷ. 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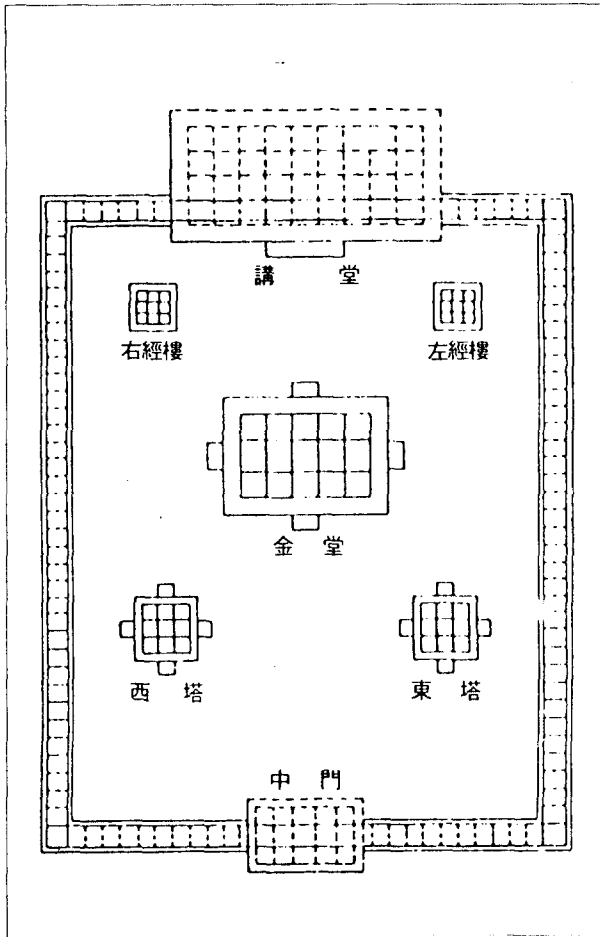
鐘의 명문에는 일반적으로 陽刻한 것과 陰刻한 것의 2가지가 있다. 新羅鐘 중에서 명문이 있는 上院寺鐘, 奉德寺鐘, 禪林院鐘, 蓮池寺 鐘, 松山村大寺鐘 중에서 上院寺鐘만이 음각명문이고, 나머지는 양각으로 되어 있다.

銘文의 위치를 보면 上院寺鐘은 종정상의 天板上에 음각하고, 禪林院鐘은 鐘腹內部에 양각하였으며, 奉德寺鐘, 蓮池寺 鐘, 松山村大寺 鐘은 종복에 양각하였다.

4. 統一新羅의 鐘樓

1) 現狀

(1) 四天王寺(址) 鐘樓址



도 9) 사천왕사지 추정가람배치도

慶州 狼山 南쪽에 위치한 四天王寺址는 지표조사에 의하여 중문, 금당, 강당을 남북일 직선상에 배치하고 金堂 남쪽 左右에는 목탑을 배치하였고 금당 북쪽 좌우에는 鐘·經樓를 배치하였으며 강당 측면에 도달하는 쌍탑식가람배치로 된 사찰지로 추정된 바 있었다.¹⁷⁾ 그러나 김정기선생의 견해를 따르자면 그러한 추정은 많은 의심을 남기고 있다.¹⁸⁾

우선, 기존 추정배치는 統一新羅시대 초기사찰의 가람배치와는 크게 다르다. 감은사나 고선사보다 먼저 건립된 가람이면 강당 좌우에는 북회랑이

아니고 강당과 동서중축선을 같이하는 別途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의 규모

17) 1929年 8月 당시 京城工專敎授 藤島亥治郎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1985年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新羅狼山 遺蹟調査』로 또 한번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18) 김정기, 「사천왕사 가람배치 고찰」 『윤무병교수화갑기념논문집』

도 비교적 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統一新羅시대 초기에 창건된 사찰지에서 북회랑이 발생하는 것은 불국사에서 시작되며 그것도 동서중축선은 강당의 동서중축선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他의 例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쌍탑식 가람에는 익랑이 있는 것이 기본 형태인데 여기서는 익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천군리폐사의 경우와 같이 日本의 쌍탑식 가람을 염두에 두고 익랑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이 느껴지나 혹 금당 북쪽 좌우에도 건물을 배치하였기에 여기다가 익랑을 설치하면 회랑에 둘러싸인 구곽내가 너무도 복잡하여 이것을 실지로 생략했을 지도 모른다.

어떻든 위와 같은 점을 보아 이같은 가람배치가 679년에 창건된 사천왕사의 가람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적어도 불국사보다 늦은 시기라야 이와 같은 가람배치를 갖는 사찰의 존재가 가능하며 그것도 皇龍寺에 처음 만들어진 평면이 정사각형인 鐘・經樓보다 뒤의 일이며 皇龍寺의 鐘・經樓가 정사각형 평면으로 改造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 사천왕사지에서 일부 지표에 노출된 유구는 창건가람의 모습이 아니고 중건가람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사 창건 緣起에 따르면 사천왕사 역시 매우 時急한 사태에서 급조된 가람인 듯하며 또 이 사천왕사에 대신하여 唐使에게 보이기 위하여 창건된 망덕사는 당연히 사천왕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믿어지나 망덕사지에는 鐘・經樓의 존재를 확인할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역시 창건 사천왕사의 가람은 지금 지표에 남은 유구들에 의해서 추측되는 가람 형태와는 차이가 많은 가람, 즉 鐘・經樓 등은 없었던 가람이었고 그 후 당과의 전쟁이 끝나고 國勢에 여유가 있는 어느 시기에 호국에 뜻깊은 사찰이기 때

문에 급조되므로써 미비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면서 대대적인 중창이 실시되었고 그 중창가람의 일부 유구가 지금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2) 皇龍寺鐘樓址

皇龍寺址는 慶尙北道 慶州市 구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皇龍寺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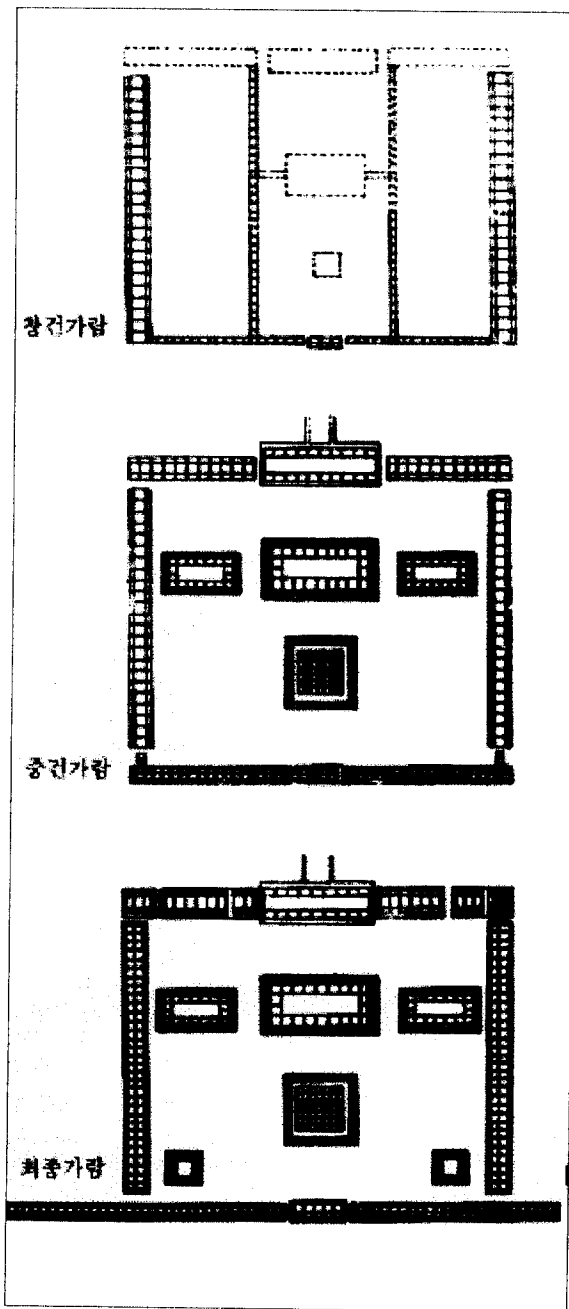
창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553년 2월에 진흥왕이 소사에 명하여 월성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자 했는데 황룡이 그곳에 나타남으로써 왕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佛刹로 고쳐짓게 하고 그 이름을 皇龍寺로 하게 했다는 것이다.¹⁹⁾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찰을 건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초 궁궐을 짓게 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기에 관해서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참고하겠다. 진흥왕이 왕위에 올라 재위 14년이 되는 해인 553년은 王의 나이 20세가 되는 해가 되며, 7세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나이가 어려 법흥왕의 딸인 지소태후가 攝政하였다.²⁰⁾ 그러므로 성년이 되는 20세가 될 때까지 母后의 섭정으로 政事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20세가 되던 재위 14년에 비로소 진흥왕 자신이 直接 政事를 관장하는 親政體制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섭정기의 궁궐을 벗어나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여 명실공히 親政體制의 政事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일면 새로운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궁궐의 창건이 짐작되며 새로운 궁궐의 건립위치는 당시 궁궐인 月城과 慈悲王(458~468)때 궁궐을 세웠다는 明活城의 中間位置 즉, 현재의 皇龍寺지가 적절한 것으로 월성의 동쪽에 해

19)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13년(553년)條,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 佛寺 號曰黃龍.

『三國遺事』 「皇龍寺丈六」 條 진흥왕 14년(553년) 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皇龍寺

20) 김선주, 「신라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 『여성과 사회』 9, 1998, 창작과 비평사.



도 10) 황룡사지 가람변천도

당되며 이 위치가 바로 새로운 궁궐을 짓기위한 新築敷地로 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皇龍寺가 점유할 도성중심의 부지에 따른 문제와 佛敎의 公認과 아울러 국력을 다해 완성된 新羅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완공된지 겨우 九년이 지난 점,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력이 소모된 점은 新宮의 건립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皇龍寺는 크게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변천과정을 창건가람, 중건가람, 최종가람으로 구분하여 문헌과 발굴보고서를 통해 내용이 확인된다.

여기서 鐘樓와 經樓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최종가람이며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鐘이 754년에 주조되었다는 三國遺事²¹⁾의 기록으로 미루어 古

21) 현존하는 聖德大王神鐘을 능가할 정도의 거대한 동종인 皇龍寺鐘이 주조되었던 사실을 기록 (景德王 13年 : 754년). 이것으로 미루어볼때 이 鐘을 걸수 있는 鐘樓·종각이 필요하게 되었으

新羅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건물이 신설됨에 따라 중건가람의 중문과 남회랑이 다시 남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가람 전체의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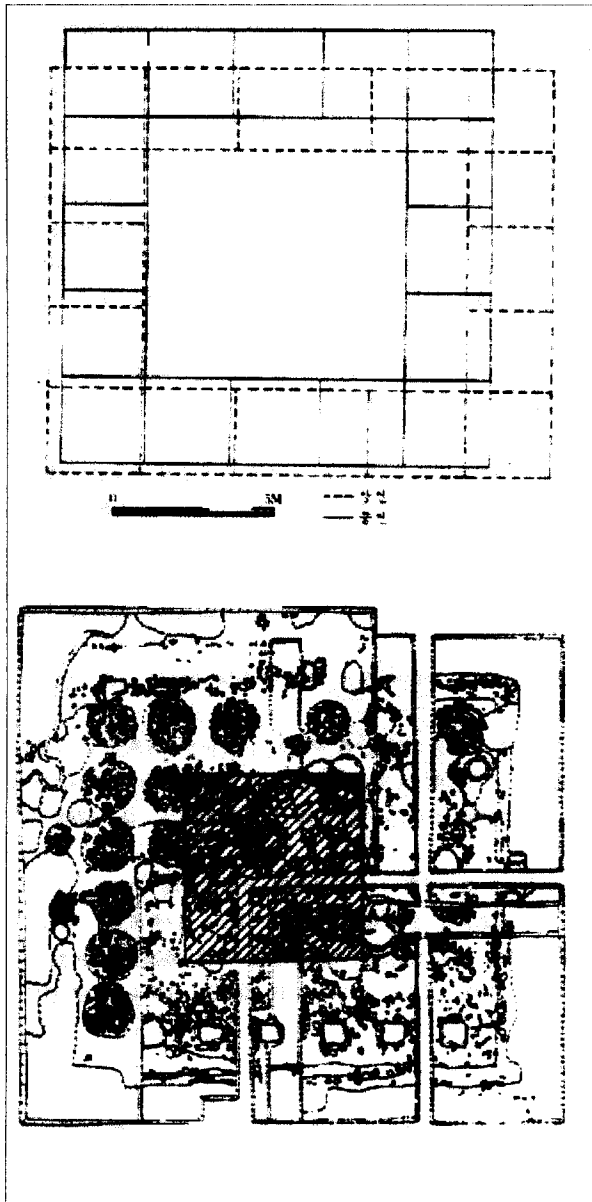
① 평면형식

鐘樓址는 塔址의 남북중심선으로부터 203尺 동쪽에 남북중심선을 두었으며, (개설뒤) 塔址의 동서중심선으로부터는 남으로 94尺 위치에 동서중심선을 두고 있다. 가람전체의 배치로 보면 탑 전방 동쪽에 추정경루지 대칭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鐘樓의 초건시에는 정면 5칸, 측면 5칸인 동서로 조금 긴 장방형의 건물이었으나 그후 外陣과 內陣空間이 있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정방형 평면인 건물로 개설되고 이 개설된 시기를 전후하여 중문이 다시 개설신축되어 이 가람이 고려 고종 25년에 몽고의 침략으로 불타게 되기까지 서있게 되었다.

② 기단구조

皇龍寺의 鐘樓와 經樓는 新羅伽藍에서 回廊에 둘러싸인 공간내에 독립된 건물로 鐘樓·經樓가 건립되는 최초의 가람이라고 볼수 있다. 아울러 9층 목탑 전방 좌우에 이는 건물 가운데 동쪽의 건물을 鐘樓라고 추정해 본다. 그 이유는 基壇土축성에 있어 서쪽 건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갈색 사질점토를 굳게 다지고 쌓았으나 동쪽건물은 기단 중앙의 8밧에 넷돌을 깔고 그 위에 거대한 화석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배치하여 그 곳의 흙은 다진 흔적이 없었기에 어떤 음향효과를 노린 工法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중건가람에서 아직 동·서회랑이라고 추정.



도 11) 황룡사 종루지

의 複廻廊으로 되기 이전에 동쪽건물과 회랑으로 轉用되고있던 창건승방건물 사이에 步廊이 있었으며 이것은 經樓가 승려의 출입이 잦지 않으나 鐘은 매일 몇번씩 쳐야하는 사찰운영상의 필요로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기단구조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초건시 鐘樓지의 기단은 일부 남아있을 뿐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다만 南端 東西列 적심석 중심으로부터 6尺 거리에 있었고 초석 적심석 상면으로 부터는 약 0.45尺 낮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나지막한 단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만 있었다.

개설 후 鐘樓지의 기단은 비교적 기대석의 적심석이 원위

치에서 크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규모를 알 수 있었으며 특히 鐘樓지 동남쪽 모서리에서 모서리 지대석이 원위치에서 발견되고 동서기단의 중앙

에 있던 계단지에서 북쪽에 놓였던 階段隅柱 받침 지대석이 나타나 구조까지도 알 수 있었다.

기단 위치는 북면에서 가장 잘 알수 있는데 北端에 東西列 초석들이 원위치를 지키고 있어 이 초석열 적심석까지 측정할 수 있었는데 그 거리는 6.5尺이었다. 따라서 남북의 기단폭은 약 57.6尺이었으며 동서폭은 약 58尺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에 있어서 지대석과 面石, 그리고 甲石을 갖춘 架構式 기단으로 건물 4면 기단중앙에는 각각 1組의 계단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계단폭은 東面에서 발견된 階段隅石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로써 약 6.8尺폭의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석과 갑석의 형태나 규모는 알 수 없었고 다만 초석 상면으로부터 지대석(東南隅 지대석)상면까지의 높이 差가 2척이므로 이 높이가 보다는 조금 얇은 기단이 마련되었을 것이며 계단은 隅石의 三枚一組의 조립식 隅石임을 확인할수 있었다.

③ 기둥간격설정

추정 鐘樓址에는 개설후 초석이 6개 남아있어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측정 가능하였다.

초건시 주칸의 실측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道里間 西로부터 東으로의 순으로

$$9.397尺 + 9.561尺 + 10.22尺 + 9.561尺 + 8.572尺 = 47.311尺$$

樑間은 南으로부터 北으로의 순으로

$$8.902尺 + 8.078尺 + 8.408尺 + 7.583尺 + 8.243尺 = 43.781尺$$

이고, 개설후의 道里間 실측 평균치는 西에서 東으로의 순으로

8.424尺+8.727尺+9.476尺+8.526尺+8.628=43.781尺

櫟間의 실측 평균치는 南에서 北의 순으로

8.628尺+9.515尺+9.476尺+8.727尺+8.424尺+=44.77尺 이 되었다.

이들 초석간 크기에서 보면 道里間은 초건기의 全長이 개설후의 全長보다 3.53尺길며 櫟間은 개설후의 全長이 초건기보다 3.55尺 길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 두 차례에 걸친 柱間크기에서 道里間과 櫟間과의 비율을 보면 초건기의 건물은 道里間이 櫟間보다 6척정도 길었고 개설후의 건물은 오히려 櫟間の 크기가 道里間보다 약 1척정도 길어 사실상의 道里間이 남북방향일 가능성도 있었다.

이제까지의 실측치와 사용 尺을 알기위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道里間 실측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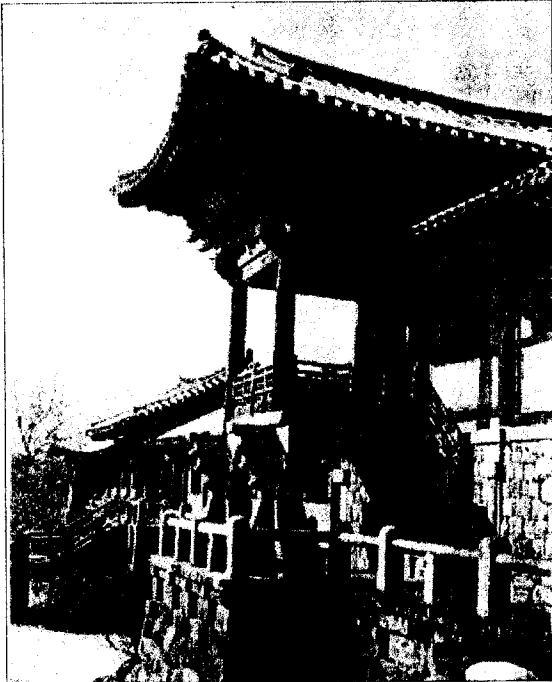
		1~2	2~3	3~4	4~5	5~6	전장
초건	실측치	9.397	9.561	10.22	9.561	8.572	47.311
	당척	9	10	10	10	9	48
	동위척	7.5	8.5	8.5	8.5	7.5	40.5
개설후	실측치	8.424	8.727	9.476	8.526	8.628	43.781
	당척	9	9	9	9	9	45
	동위척	7.5	7.5	7.5	7.5	7.5	37.5

< 櫟間 실측 평균치>

	초건			개설후		
	實測值	唐尺	東魏尺	實測值	唐尺	東魏尺
F~E	8.243	8	6.5	8.424	9	7.5
E~D	7.583	8.5	7	8.727	9	7.5
D~C	8.408	9	8	9.476	10	8
C~B	8.078	8.5	7	9.515	9	7.5
B~A	8.902	8	6.5	8.628	9	7.5
전장	41.213	42	35	44.77	46	38

(3) 佛國寺 鐘樓(범영루)

慶尙北道 慶州市 진현동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佛國寺는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의 발원으로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



도 12) 불국사 범영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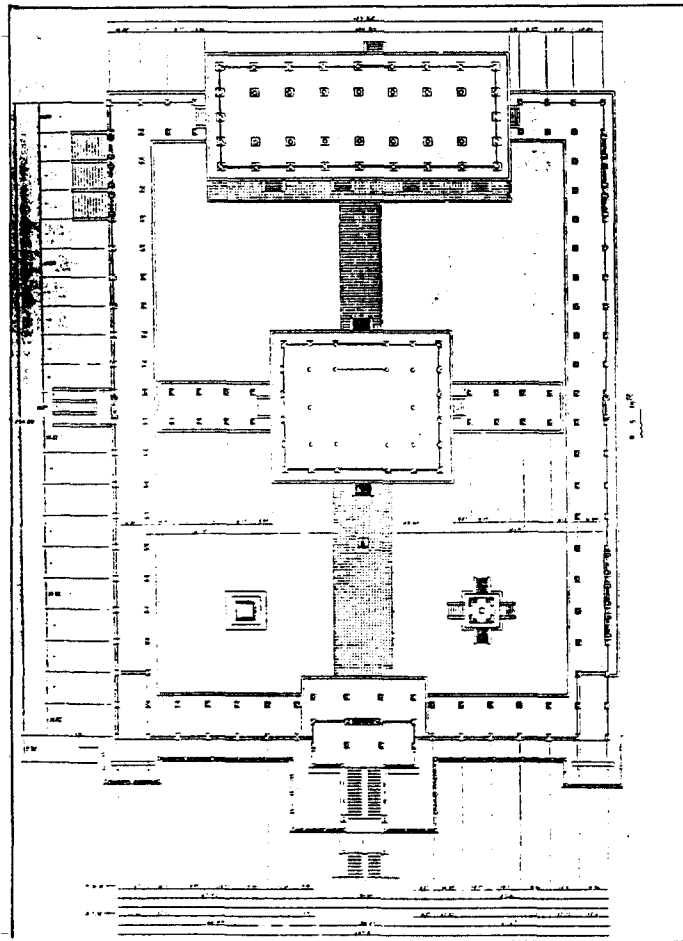
창기」(『불국사고금창기』라고도 불린다.)에 의하면 이차돈이 순교한 이듬해인 528년(法興王15)에 법흥왕의 어머니 迎帝夫人과 己尹夫人이 이 절을 창건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574년(진흥왕35)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只召夫人이 이 절을 중창하고 승려들을 득도하게 하였으며, 王의 부인은 비구니가 된 뒤 이 절에다 비로자나불상과 아미타불상을 봉안하였다. 또한, 670년(문무왕 10)에는 이

절의 강당인 無說殿을 짓고 神琳과 表訓 등 義湘의 제자들을 머물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들 기사는 新羅 佛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소의 모순이 있지만,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복장기에서 이 불상들이 681년(신문왕 1) 4월 8일에 낙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불국사가 대유모는 아니었지만 대웅전과 무설전을 갖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불국사고금창기」에 보이는 鐘·經樓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기록을 찾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韓國	中國	西紀	干支	紀 要
光海 4	萬歷 40	1612	壬子	梵鐘閣・左右經樓・南行廊重建(海眼)
肅宗 16	康熙 16	1690	庚午	右經樓重建
肅宗 41	康熙 54	1715	乙未	右經樓重創・靑雲橋・白雲橋重修. 三尊改金

佛國寺가 大刹이 된 것은 김대성에 의해서였다. 『三國遺事』에는 김대성이 現世의 부모를 위해서 이 절을 創建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절은 751년에



도 13) 불국사 대웅전 一廊 평면도

공사를 시작하여 774년(惠恭王 10) 12월에 그가 목숨을 마칠때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뒤 국가에서 완성시켰다. 따라서, 이 절은 김대성 개인의 願

刹이라기보다는 국가의 願刹로 건립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으로 크게 양분하고 있는데 석단 위는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이고, 그 밑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범부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 석단의 두 모퉁이 위에 經樓와 鐘樓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번져가는 妙音의 위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국사 鐘樓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① 평면형식

大雄殿一廓의 西廻廓 南端에 위치한 범영루는 정면 1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불국사고금창기』에 나오는 이 건물의 규모를 살펴보면, 柱間 東西長(標間) 10.6尺, 柱間 南北全長(道里間) 31.7尺, 초석 상면으로부터 平柱高 10.8尺, 초석 상면으로부터 이맥이 中面까지의 高 15.7尺, 초석 상면으로부터 용마루 끝까지 25.0尺, 建坪 9.4坪이며, 單層 長臺石 기단을 가진 道里間 2間, 標間 1間の 다포 팔작집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기단구조

기단은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東·西廻廓의 기단 連長상의 그대로이다. 남쪽으로 돌출된 한 間の 樓는 범영루나 좌경루 모두 대웅전 전면 下層石 築基壇 위에 세워진 石柱위에 세워졌으므로 대웅전의 하층석축기단이 동·서 양루의 기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범영루의 서측기단은 廳間 2間이 대웅전 一廓 西側 석축위에 바로 놓여 있어 석축 자체가 基壇으로 되어 있다.

③ 기둥간격설정

범영루는 道里間 3間, 樑間 1間으로 樑間 南面의 기둥 2개가 대응전 一廊의 前面 하층석축기단 위의 안상형석주에 놓여 있었고 나머지 4개의 기둥은 상층석축기단 위의 방형초석상에 놓여있다. 범영루의 柱間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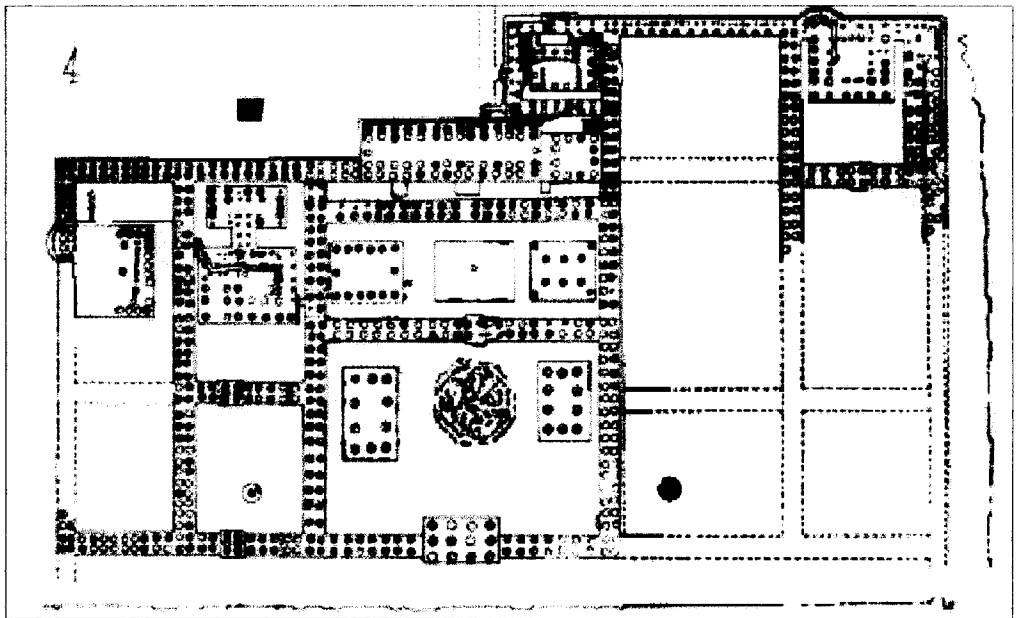
	제1柱間	제2柱間	제3柱間	제4柱間
道里間	9.30尺	11.20尺	11.20尺	31.70尺
樑間	-	-	-	10.60尺

2) 비교 고찰

비교 고찰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가람배치와 신라의 가람배치 비교를 통하여 鐘樓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도록 한다.

(1) 고구려 정릉사지의 종루지

정릉사지는 1974년 동명왕릉일대의 고구려유적을 전면적으로 발굴할 때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정릉사지는 궁궐권축과 사원건축이 결합된 독특한



도 14) 정릉사지 가람배치도
형식이다.

궁궐건축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정릉사지의 평면구성이 크게 다섯 개 구역으로 등분된 것으로 이것은 안학궁 건축군에서 보이는 다섯 개 구역등분과 동일한 수법이다.

둘째, 정릉사지에서 기본건물들은 회랑건물로 둘러막았으며 매개 건물사이

에 앞 회랑과 회랑문을 설치하였다.

셋째, 정릉사지의 건물의 평면구조를 살펴보면 건축공간을 넓게 조성하기 위하여 기둥을 앞뒤로 두줄씩 좁게 세웠다.

넷째, 당탑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건축구역과 동서랑쪽 건축군이 형식과 내용에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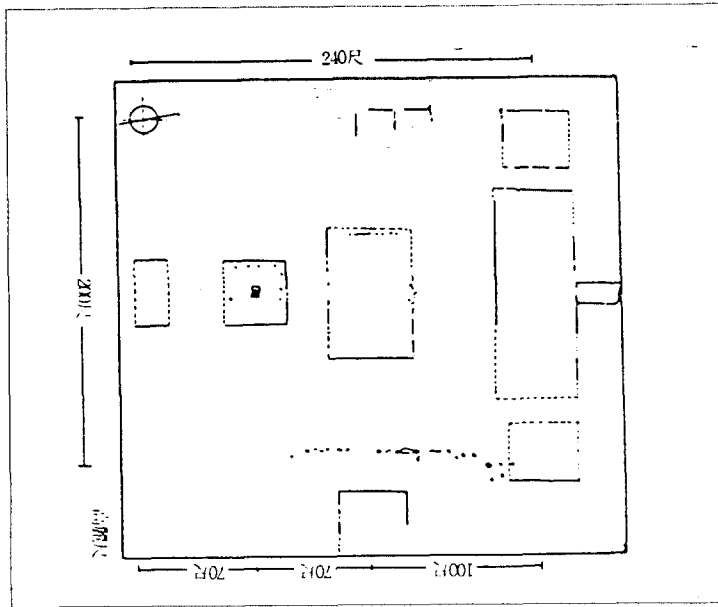
다섯째, 정릉사 강당뒤에는 자연암반을 이용한 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후원은 일반사원에서 볼수 없는 특수한 형식이다.

이같은 특징을 가진 정릉사지에서 종루는 중금당의 左 또는 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전면에 탑과 좌우금당을 배치하고 뒷면에 중금당을, 그리고 그 좌우에 종루지와 경루지를 배치한 것으로 고시대의 가람배치에서 주로 쓰이는 배치법으로 보인다. 추정컨데, 鐘·經의 품격이 塔에 비하여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승방 등의 가까이에 위치하여 절 생활자체에 편의함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백제 군수리사지의 종루지

忠南 扶餘邑 軍守里에 있는 군수리사지는 그 유래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곳은 1935년과 1936년 2차에 걸쳐 일본에 의하여 발굴조사된 바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²²⁾ 추정 塔址는 중문지에서 북쪽으로 약 83尺 되는 곳에 있고 사방 46尺의 정방형 기단을 가지고 있으며, 금당지는 목탑지에서 북으로 중심거리 약 80尺 되는 곳에서 노출되었는데 기단의 크기는 동서가 약 90尺, 남북이 60尺 이며, 기와를 세워서 쌓은 瓦積기단으로 형성되었다.

강당지는 금당지 북쪽 중심거리 약 120尺 되는 지점에서 노출되었는데 동서가 150尺, 남북 60尺 크기의 瓦積기단이었다. 강당지 동·서 양변에서 약 16



도 15) 군수리사지 가람배치도

尺 떨어져 方形의 건물
지가 나왔는데 동서 50
尺, 남북 41尺으로 이
곳이 鐘·經樓址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寺址에서 鐘樓
는 이전에 보았던 금당
의 뒷면에서 강당의 옆
면으로 나와 있다. 물
론 지형의 특성과 설계
자의 생각 등에서 차이

를 보일 수 있겠지만 종루의 성격이 사찰내 생활적 편의성에서 조금씩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3) 신라 가람배치에서의 종루

지금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종루위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시
기보다 후대에 조성된 신라 종루의 위치는 어떠하였을까?

황룡사의 종루지는 창건가람에는 없었고 황룡사 구층목탑이 완성된 어느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鐘·經樓가 탑의 전면으로 나와있다. 즉 중문을 통하여
들어서면 탑이 중앙에 보이지만 그 전면 좌우에 鐘·經樓가 위치하였던 것이
다. 또한 불국사의 鐘·經樓는 전면 기단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것은 무
엇을 뜻하는 것인가?

22) 朝鮮古蹟調査研究會, <扶餘 軍守里廢寺址 發掘調査> 『古蹟調査報告』, 1936.

필자는 경루와 종루가 탑의 전면으로 배치되고, 그 좌우에 鐘·經樓가 건립되는 시기에 이르면, 종의 품격이 탑이나 불상과 동일시되는 위치로 상승하였다고 추정한다.

신라 고대의 불교유입시기에서는 鐘·經樓는 가람의 중심축 뒤에 위치하고, 신라중대에 이르면 불교의 교종사상이 발달하고 그만큼 경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점차 가람에서 전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전을 비치한 경루와 대칭되는 위치에 종루를 만들어 종을 걸었다는 것은 종의 품격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사찰내 생활 편이적인 성격에서 점차 왕권친화적 또는 그 사찰을 지원하는 귀족세력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성격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람의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III. 統一新羅 鐘의 鑄成背景

統一新羅鐘의 鑄成背景에는 그 시대의 정치상과 사회상의 치밀한 결합으로 만들어 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新羅中代の 政治・社會과 新羅中代 政治에서의 왕위계승과 권력분쟁, 마지막으로 鐘을 조성한 배경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新羅 中代の 政治・社會

일반적으로 新羅 中代를 전제왕권이 확립된 시기라 한다. 중대의 전제왕권은 절대군주제의 확립을 위해 왕권의 신성화에 노력하였다. 유교적 왕도政治이념에 입각한 빈번한 교서 등을 통해 군주의 덕성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확대와 경전의 강론을 통해 군주와 백성의 규범을 밝힘으로서 전제 군주제의 노리적 근기를 확립하려 하였다. 또한, 전제왕권은 佛敎를 통해 정신적 뒷받침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佛敎는 개인과 국가, 개인과 왕실을 연결하는 公的倫理가 되었고, 佛敎행사는 국가적 사업으로 승화되었다. 百座講會와 같은 佛敎집회는 국가의 안녕과 보호를 위한 행사였으며, 사천왕사와 감은사 등의 成典은 왕실의 正統性和 權威를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유교적 왕도政治의 구현에서 현실적 권능을 추구하였고, 佛敎의 종교적 권위에서 그 신성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²³⁾

또한 전제왕권의 확립은 관료제도의 정비를 통한 뒷받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수의 특정 귀족 세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²⁴⁾

23) 申瑩植, 「新羅中代 專制王權의 特質」『汕紘史學』4, p 607.

24) 申瑩植, 「新羅中代專制王權의 展開過程」『汕紘史學』4, 1990. p 554.

新羅의 전제왕권은 中古(법흥왕~진덕여왕)에 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²⁵⁾ 中代까지 이어졌으나 여기에서는 上院寺鐘, 皇龍寺鐘, 奉德寺鐘이 만들어진 8세기에 있어서의 전제왕권의 전개과정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新羅中代の 專制政治는 신문왕때 확립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직후 佛國土를 수호하려는 뜻인 四天王寺 정신을 계승한 感恩寺가 신문왕 2년에 이룩되었다는 사실²⁶⁾과 통일전제왕권의 상징인 五岳이 이 시기에 성립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²⁷⁾

또한 다음의 기록들은 中代 전제왕권의 확립과정과 그 성격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원년 8월에, 蘇判 金欽突·波珍飡 興元和 大阿飡 眞功 등이 모반하므로 이들을 죽였다. 伊飡 軍官 등이 賊臣欽突의 逆謀事變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죽였다. 4년 11월 安勝의 簇子인 將軍 大文이 金馬渚에서 모반하다가 발각되어 죽였다.(《三國史記》卷8)
- ② 2년 4월 위화부사 2인을 두고 선거의 일을 맡겼다. 6월 공장부감 1인과 체전감 1인을 두었다. 6년 1월 예각부사 1인과 경 2인을 두었다. (同)
- ③ 5년 봄에 完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통원을 촌관으로 삼았다. 거일주를 나누어 청주를 둠으로서 9주가 완비되었다. (同)
- ④ 2년 1월에 친히 신궁에 제사하고 대사하였다. 7년 4월에 대신을 조 에 보내어 제사하고 태조대왕·문흥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의 령을 받들었다. (同)
- ⑤ 2년 6월에 국학을 세우고 경 1인을 두었다. 6년 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문장을 請하니 즉천무후는 有司에게 길흉요례를 서사케 하고 문관사림에

25) 李晶淑, 「新羅眞平王代의 政治의 性格」, 『韓國史研究』, 1986, p 27.

26)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p 85.

27) 李基白,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p 205.

서 사섭유사를 골라 50권을 내주었다. (同)

⑥ 7년 5월 문무관료들에게 전지를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9년 1월 내외관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곡을 주어 창신으로 삼았다. (同)

①은 왕실에 반발하는 구귀족에 대한 응징이다. 김흠돌은 고구려 정복에 공을 세운 名將이며 신문왕의 장인이었다. 또한 金軍官은 兵部令 · 上大等으로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으나 제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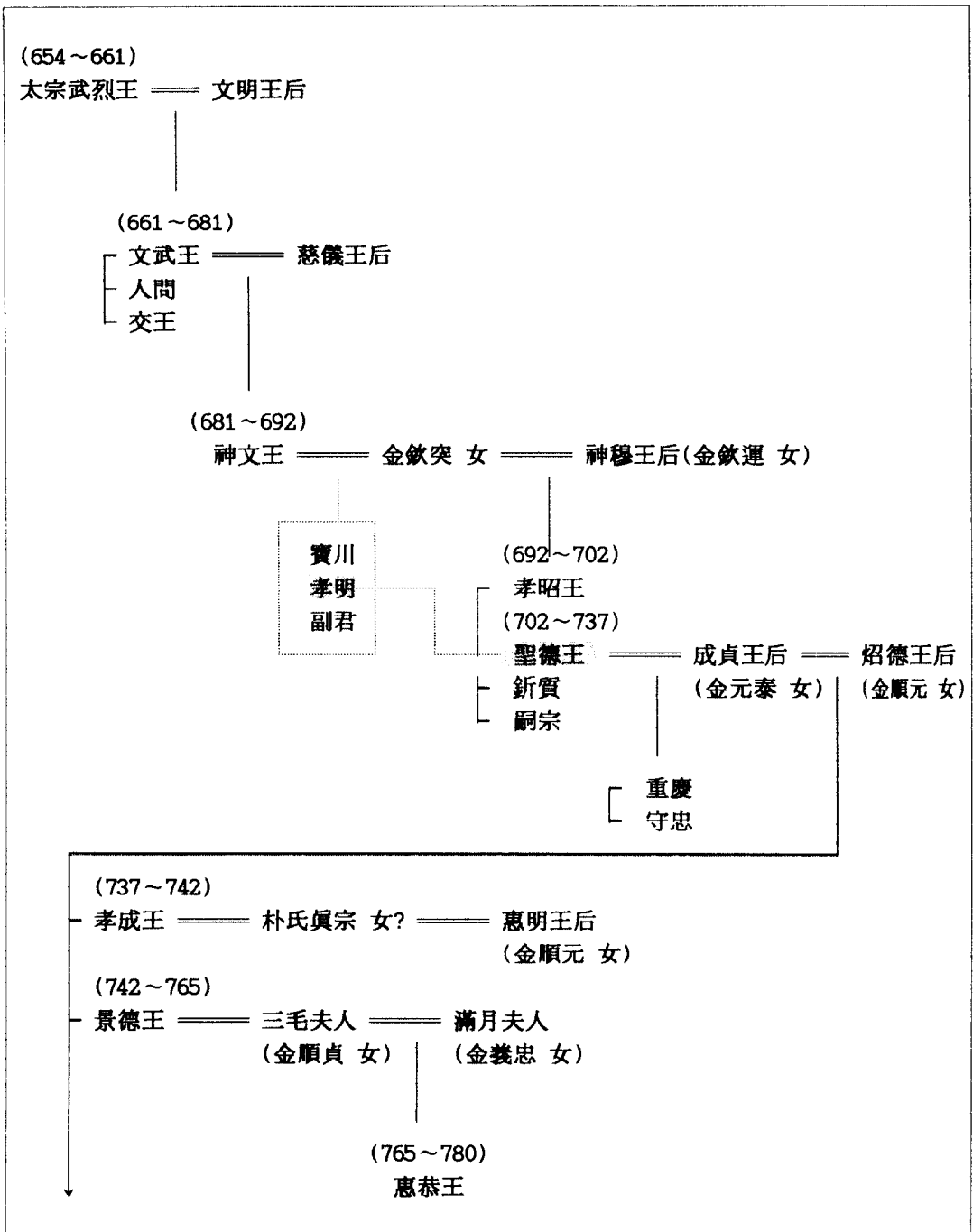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부가 재편되었다.²⁸⁾ 즉, 이 사건으로 무열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위부의 개편은 眞骨 독점 규정을 폐지하여 6두품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진골세력을 견제하고, 또 6인의 복수제를 채택한 것도 상호 견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⁹⁾

② · ③ · ⑥은 중앙과 지방제도의 정비, 관료제도의 정비를 통한 전제왕권의 구현과 그에 따른 경제기반 확충이라 볼 수 있으며, ④는 무열계 왕통의 家門의 權威를 나타내기 위한 오묘제의 確立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왕가의 관념위에서 直祖를 奉祀함으로써 家格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⑤는 유교적 왕도政治의 구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政治적 발전과 제도적 완비는 聖德王대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이한다.

28) 《三國史記》 卷 8, 新羅本紀 8, 神文王 元年條.

29)李文基, 「新羅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 『歷史教育論集』 9, 1986, p 48.

<표. 8. 新羅中代 王位繼承表>



※ — 선의 내용은 辛鍾遠, 「新羅 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을 참조한 내용임.

2. 新羅中代の 王位繼承과 권력분쟁

1) 神文王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이며[명지의 자는 일조이다.],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의[의(儀)를 의(義)로 쓰기도 한다.]왕후이다. 왕비는 김씨이며 소관 흠들의 딸이다. 왕이 태자였을 때 그녀를 맞았으나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뒤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 문무왕 5년에 태자가 되었으며, 이 때에 와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관작을 이어 받았다.(『삼국사기』 8, 神文王 즉위년조)」³⁰⁾

太宗武烈王에 의하여 시작된 中代 전제왕권이 보다 확고하게 된 시기는 文武王代를 거친 神文王代의 일이다.³¹⁾ 신문왕은 즉위와 함께 무열왕 이후 계속 상당한 세력을 떨쳐왔던 진골귀족세력을 제거하였고, 중앙과 지방제도를 정비·개혁하여 전제왕권을 확립시켜 나갔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정치적 사건이 원년(681)년에 일어난 金欽突亂이었다. 김흠돌의 난이 일어난 계기로는 첫째, 김흠돌세력에 속한 인물들이 文武王과 神文王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서서히 소외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 김흠돌의 女가 태자비로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점, 셋째, 신문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王妃로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찾아

30) 『三國史記』 8, 神文王 즉위년조, <神文王>立. 諱<政明>[明之字<日韶(日炤)>], <文武大王>長子也. 母<慈儀[一作義]王后>, 妃<金>氏, 蘇判<欽突>之女, 王爲太子時, 納之, 久而無子, 後坐父作亂, 出宮. <文武王>五年, 立爲太子, 至是繼位. <唐><高宗>遣使冊立爲<新羅>王, 仍襲先王官爵.

31)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고대편, 一潮閣, 1982, p. 309.

볼 수 있다.

이 김흠돌난은 전제왕권이 성립된 이후 武烈王系가 부딪쳤던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서, 신문왕은 김흠돌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중대적인 정치성격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문왕은 김흠돌에 난에 대하여 철저한 탄압을 가했는데 그 사실은 다음의 교서에 의해서 알수 있다.

「8일, 소관 김 흠돌·파진찬 홍원·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되었다.

16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예전 성인들의 좋은 법도이며,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 또한 선왕의 훌륭한 법도이다. 과인이 못나고 박덕한 몸으로 숭고한 왕업을 이었기에, 식사를 잊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을 자면서, 충복 대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였으니, 상중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반란의 괴수 흠돌·홍원·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여 작위에 오른 것이 아니며, 관직도 실은 은전에 의하여 오른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행복이나 위세를 마음대로 만들어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상하를 기만하였으며, 한없이 탐욕스런 생각을 함부로 내보이고 포악한 마음을 휘둘렀으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끌어 들이고 궁중의 내시들과 결탁하였다. 그 화란이 안팎으로 통하여 악의 무리들이 모여 거사일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과인이 위로 천지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 조상의 도움을 받아, 쌓이고 쌓인 흠돌 등의 음모가 탄로되었으니, 이는 곧 사람과 귀신이 모두 취하지 않는 행위요,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니, 정의를 범하고 기풍에 상처받이 이보다 더 심한것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군사를 모아 흉악한 무리들을 무찌르니 더러는 산골로 도망하고, 혹은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잔당들은 모두 체포하여 이미 처형하였고, 향후 3,4일 사이에 괴수들도 모두 소탕할 것이다. 이는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백성을 걱정하

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야 어찌 하루라도 잊었겠는가! 이제 요망한 무리들이 숙청되어 원근에 걱정이 없어졌으므로, 소집하였던 병마를 조속히 돌려보낼 것이니, 이를 사방에 포고하여 백성들이 알도록 하라!”

28일, 이찬 군관을 목 베고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임금을 섬기는 법도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요, 관직에 있는 의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임금을 정성껏 보좌하지 못하고, 결백한 절조를 조정에 바치지 못하며, 임금의 명령을 받으면 제 몸을 잊어 버릴 줄 모르고,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표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마침내 역신 흠들 등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도 미리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고, 더욱 공공의 질서를 따를 뜻이 없는 것이니, 어찌 다시 재상의 직무를 맡겨 국가의 현장을 흐리게 할 것인가? 마땅히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후진들에게 경계를 삼게 하리라. 군관과 그의 맏아들 한 명을 자살하여 죽게 하고, 원근에 포고하여 모두가 알도록 하라.”(『三國史記』8, 神文王 원년 8월 16일)」³²⁾

이같이 신문왕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말단의 가담자들까지도 철저히 색출하여 제거하였다. 아마도 이 기회를 통해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

32) 『三國史記』8, 神文王 元年, 八月, 拜舒弗邯<眞福>, 爲上大等. 八日, 蘇判<金欽突>·波珍浪<興元>·大阿浪<眞功>等, 謀叛伏{伏}④誅. 十六日, 下教曰: “賞有功者, 往聖之良規; 誅有罪者, 先王之令典. 寡人以眇躬涼德, 嗣守崇基, 廢食志{忘}④餐, 晨興晏寢, 庶與股肱, 共寧邦家, 豈圖縈經之內, 亂起京城! 賊首<欽突>·<興元>·<眞功>等, 位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愼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上下. 比口{日}④逞其無厭之志, 肆其暴虐之心, 招納凶邪, 交結近堅, 禍通內外, 同惡相資, 剋日定期, 欲行亂逆. 寡人上賴天地之祐, 下蒙宗廟之靈, <欽突>等惡積罪盈, 所謀發露, 此乃人神之所共棄, 覆載之所不容, 犯義傷風, 莫斯爲甚. 是以追集兵衆, 欲除臯鏡{獍}④, 或逃竄山谷, 或歸降闕庭. 然尋枝究葉, 並已誅夷, 三四日間, 囚首蕩盡. 事不獲已, 驚動士人, 憂愧之懷, 豈忘旦夕! 今既妖徒廓清, 遐邇無虞, 所集兵馬, 宜速放歸, 布告四方, 令知此意!” 二十八日, 誅伊浪<軍官>, 教書曰: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之義, 不二爲宗. 兵部令伊浪<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拾遺補闕, 效素節於朝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既無憂國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棄, 以懲後進. <軍官>及嫡子一人, 可令自盡. 布告遠近, 使共知之!”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려는 생각에서 그러한 과감한 피의 숙청을 단행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 진골귀족세력을 철저히 탄압할 수 있었던 신문왕의 勢力基盤은 무엇일까? 그것은 위의 신문왕 교서에 股肱으로 명시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 고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으나 그 대체적인 것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武烈王系와 金庾信系를 들 수 있다. 무열왕계의 경우 전제왕권의 성립 이후에 보다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王弟나 王子같은 혈연적인 측근을 中侍 등 행정기구의 요직에 임명한 사실에서³³⁾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金庾信系의 경우 武烈王系와는 혼인을 통해서 밀접한 관련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전제왕권의 성립과정에서나 삼국통일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무열왕계를 도왔다는 사실에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들이 신문왕대에 있어서 고굉이었다는 사실은 김흠돌난이 진압된 이후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서도 확인이 된다.

「3년 봄 2월, 순지를 중시로 임명하였다. 일길찬 김 흠운의 딸을 부인으로 삼기로 하고,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을 보내 납채를 하였는데, 폐백이 열다섯 수레, 쌀·술·기름·꿀·간장·된장·포·식혜가 1백 35수레, 벼가 1백 50수레였다.

5월 7일, 이찬 문영과 개원을 김 흠운의 집에 보내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하고, 그 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손문과 야찬 좌야·길숙 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아내와 딸과 이 밖에 양과 사랑 두 부의 여자 각 30명씩을 데리고 가서 부인을 맞아 오게 하였다. 부인이 수레에 탔는데 좌우에 시종하는 관원들과 하녀로 따르는 부녀들의 모습이 성대하였다. 왕궁 북문에 이르러 부인이 수레에

33)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pp. 162~164.

서 내려 대궐로 들어 왔다.」³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라는 것은 愷元이나 三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기 김춘추와 김유신의 아들인 것이다.³⁵⁾ 그리고, 문무왕대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6두품이하의 관료세력들과 함께 신문왕은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이 개혁에는 진골세력의 군사력을 빼앗기 위한 軍事制度 개편과 이들의 주된 경제적 기반이었던 녹읍의 혁파로 진골귀족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2) 孝昭王

신문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孝昭王의 즉위에 대한 『三國史記』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이흥[‘흥’을 ‘공(恭)’이라고도 한다.]이며, 신문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신복왕후이며, 일길찬 김흠운[‘金欽運’을 ‘金欽雲’이라고 하기도 한다.]의 딸이다.³⁶⁾」

孝昭王은 神文王의 嫡長子로 신문왕 7년(687)에 태어나 11년(691) 태자로

34) 『三國史記』 8, 神文王 三年, 春二月, 以<順知>爲中侍. 納一吉澣<金欽運>少女, 爲夫人. 先差伊澣<文穎>·波珍澣<三光>定期, 以大阿澣<智常>納采, 幣帛十五襲, 米·酒·油·蜜·醬·鼓·脯·醢一百三十五襲, 租一百五十車.

五月七日, 遣伊澣<文穎>·<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澣<大常>·<孫文>·阿澣<坐耶>·<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嫗各三十人迎來. 夫人乘車, 左右侍從, 官人及娘嫗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

35) 개원과 무열왕과의 관계는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p. 162 참조.

36) 『三國史記』 8, <孝昭王(孝昭王)>㉔立. 諱<理洪>[一作恭], <神文王>太子. 母, 姓<金>氏<神穆王后>, 一吉澣<金欽運>[一云雲]女也.

책봉되었으며, 신문왕의 사후인 12년(692)에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6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신라 中代에 있어나 이와 같은 어린 왕의 즉위는 專制王權의 한 표시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³⁷⁾ 효소왕은 그의 어린 나이로 말미암아 즉위하자마자 스스로에 의한 정상적인 王位수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소왕의 모후인 신목왕후가 섭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³⁸⁾ 이것은 즉위초 전개된 불안한 정치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① 효소왕은 즉위년 9월 7일에 大玄 薩滄의 아들 夫禮郎을 國仙으로 삼았는데, 그 문객이 천명이나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安常과 더욱 친하였다. 이듬해에 그는 무리를 거느리고 금란에 가서 놀다가 北溟의 境界에 이르러 狄賊에게 붙잡혔다. 문객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왔는데 홀로 안상만이 그를 뒤쫓아 갔으니 이때가 3월 11일이었다.(栢栗寺條)

②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여 “先王께서 神笛을 얻어 나에게 전하여 지금 玄琴과 함께 內庫에 간수해 두었는데, 무슨 일로 국선이 갑자기 적에게 잡혀갔는지 모르겠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하였다. 때마침 瑞雲이 天尊庫를 뒀었다. 왕은 또 더욱 두려워하여 그것을 조사시켜 보니 창고 안에 두었던 현금과 신적 두 보물이 없어졌다. 왕은 말했다. “내가 어찌 복이 없어 어제는 국선을 잃고 또 현금과 신적까지 잃게 되었는가?” (중략) 4월에 왕이 국내에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과 신적을 찾는 사람은 1년 租稅로써 상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5월 15일에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의 부처님 앞에 가서 저녁기도를 올렸더니 난데없이 香卓위에 현금과 신적 두 보물이 있고 부례랑과 안상 두 사람도 불상뒤에 와 있었다.(중략) 부례랑을 봉하여 대각간을

37) 李基白, 「統一新羅의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고대편, 一潮閣, 1982, p. 312에서 전제왕권의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중대 국왕의 경우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고, 이후 왕위에 올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辛鍾遠, 「新羅 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p. 113 및 金英美,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합집, 1988, p. 377. 진흥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三國史記』4, 眞興王 즉위조)

삼고 그의 아버지 대현 아찬은 太太角干으로, 그의 어머니 龍寶夫人은 沙梁部 鏡井宮主로 삼았다.(동상)

③ 6월 12일에 彗星이 동방에 나타나고 17일에 또 서방에 나타나니 日官이 아뢰었다. “이것은 현금과 신적에게 봉작하지 않은 표징입니다.” 이에 신적을 책호하여 萬萬波波息笛이라 했더니 혜성이 이내 없어졌다.(동상)

④ 神文王이 세상을 떠나고 孝昭王이 왕위에 오르자, 산릉을 만들고 장례길을 닦는데, 鄭氏지의 버드나무가 길에 가로막고 서 있으므로 有司가 베려하자 정공이 노해 말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베었으며 베었지, 이 나무는 베지 말라.” 유사가 이 말을 위에 알렸더니 왕은 크게 노하여 법관에게 명령했다. “정공이 왕화승의 신술을 믿고 장차 불손한 일을 도모하려 하여 왕명을 거스려 제머리를 베라고 하니 마땅히 제 종을 대로 해주어야겠다.” 이에 그를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물어버렸다. (『三國遺事』 5, 神呪 惠通降龍).

위의 기록은 국선 부례랑의 실종과 만파식적 및 현금의 분실 및 혜성의 빈번한 출현 등 효소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효소왕의 즉위후 곧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효소왕 즉위후에 일어난 부례랑 실종사건의 원인은 그의 國仙임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이들 사건이 대부분 萬波息笛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공통적인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다.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한다면 만파식적은 神文王이 金欽突亂을 진압하여 전제왕권의 확립을 이룬 다음해인 2년(682)에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만파식적에는 김흠돌난과 같은 모든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기를 원하는 소망도 담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眞骨貴族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專制王權에 의한 정치가 계속 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³⁹⁾ 그 결

과 武烈王系에 있어서 만파식적은 통일신라기 專制王權下 왕위계승의 상징물로써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신라의 평화를 의미하여 주는 물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파식적이 孝昭王의 즉위 직후 곧 분실되는 등 일련의 몇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무열왕계의 전제왕권이 추구하는 질서와 평화에 대한 반발이 당시에 표현되었다는 것으로, 효소왕 즉위초 왕위의 불안정을 나타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소왕은 이런 반발을 누를 수 있는 政治勢力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沙梁部の 세력이 아닐까 한다. 효소왕 당시 부레랑의 母가 사랑궁주에 책봉되는 등의 사실은 효소왕이 사랑부출신의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 왕의 즉위시 母后가 섭정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모후로서 대표되는 세력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효소왕의 모후인 神穆王后의 경우 남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왕과 그녀의 혼인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자세히 『三國史記』에 기록되고 있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① 3년 봄 2월, 순지를 중시로 임명하였다. 일길찬 김 흠운의 딸을 부인으로 삼기로 하고,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을 보내 납채를 하였는데… 40)(神文王 3년)

② 5월 7일, 이찬 문영과 개원을 김 흠운의 집에 보내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하고, 그 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손문과 아찬 좌야·길숙 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아내와 딸과 이 밖에 양과 사랑 두 부의 여자 각 30명씩을 데리고 가서 부인을 맞아 오게 하였다. 부인이 수레에 났는데 좌우에 시종하는 관원들과 하

39)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 310.

40) 『三國史記』神文王 三年, 春二月, 以<順知>爲中侍. 納一吉浪<金欽運>少女, 爲夫人. 先差伊浪<文穎>·波珍浪<三光>定期, 以大阿浪<智常>納采 …

너로 따르는 부녀들의 모습이 성대하였다. 왕궁 북문에 이르러 부인이 수레에서 내려 대궐로 들어 왔다.⁴¹⁾(神文王 3년)」

효소왕의 모후인 신목왕후는 신문왕의 첫째 왕비인 김흠돌의 女가 출궁당한 뒤인 신문왕 3년(638)에 왕비로 들어왔다. 그의 父는 金欽運으로 무열왕의 사위이다.⁴²⁾ 이것은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혼인은 王族 김씨 내의 族內婚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목왕후의 가계와 무열왕계와의 밀접성은 쉽게 확인이 되지만, 이때 그녀와 신문왕의 혼인을 위하여 관계한 사람들은 매우 주목된다. 그것은 이들 인물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효소왕의 勢力基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들 가운데 그 성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文潁과 愷元 그리고 三光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원은 무열왕의 아들로 문무왕대 中侍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삼광은 金庾信의 아들이다.⁴³⁾ 이들은 모두 효소왕에게 있어서는 內外從祖父가 되는 셈이다. 또한 문영은 삼국통일전쟁기간에 크게 활약한 인물로, 김유신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金庾信과 밀접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김흠돌의 女가 출궁된 후 신문왕의 두 번째 왕비로 신목왕후를 받아들일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무열왕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으로 전제왕권을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신목왕후의 입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효

41) 『三國史記』 神文王, 五月七日, 遣伊淪<文潁>·<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淪<大常>·<孫文>·阿淪<坐耶>·<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嫗各三十人迎來. 夫人乘車, 左右侍從, 官人及嬪嬙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

42) 『三國史記』 47, 金欽運傳.

43) 『三國史記』 43, 金庾信傳 하.

44) 『三國史記』 5, 武烈王 8년 7월.

소왕의 배후세력으로서 신목왕후를 도와 孝昭王代 정치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孝昭王代 이들의 활동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효소왕 3년(694)에 眞福의 뒤를 이어 문영이, 4년(695)에는 개원이 上大等으로 각각 임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목왕후가 효소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했을 때 이들의 도움이란 거의 결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효소왕은 모후의 입궁과 관련된 이들 세력의 협력하에 왕위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효소왕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경영의 난이 일어난다. 이 경영의 난과 함께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의 반발을 수습하지 못한 결과는 신목왕후를 지지하던 金庾信系의 몰락과 신목왕후의 죽음, 그리고 효소왕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진골귀족세력의 강대함은 성덕왕의 즉위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성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흥광이다. 본명은 용기였으나 당 현종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선천 연간에 고쳤다.〔당서〕에는 김 지성이라 하였다.〕 그는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며, 효소왕의 동복 동생이다. 효소왕이 별세하였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국인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⁴⁵⁾(『三國史記』 8, 聖德王 즉위년)

라고 하여, 『三國史記』이 기록은 성덕왕이 太子로서가 아니고 國人 즉 眞骨貴族의 추대를 통하여 즉위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효소왕의 弟로 왕위에 오른 성덕왕 또한 즉위초 일정기간 동안 효소왕대 전개된 정치

45) 『三國史記』 8, 聖德王 즉위년, <聖德王>立. 諱<興光>, 本名<隆基>, 與<玄宗>諱同, <先大>中改焉.〔『唐書』言<金志誠>.] <神文王>第二子, <孝昭(孝照)>⑨同母弟也. <孝昭王(孝照王)>⑨薨無子, 國人立之.

상황으로 말미암아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 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3) 聖德王

성덕왕의 즉위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그의 첫째 왕비와 관련된 진골귀족세력에 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왕비인 嚴貞王后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여름 5월, 승부령 소판 김 원태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였다.⁴⁶⁾(『三國史記』 8, 聖德王 3년)

② 3월, 왕이 성정[엄정이라고도 한다.]왕후를 궁에서 내보내는데, 비단 5백 필·밭 2백 결·벼 1만 석·저택 한 구역을 주었다. 그 집은 강신공의 옛 집이었는데 이를 사준 것이다.⁴⁷⁾」

성정왕후로도 불리운 이 왕비는 성덕왕 3년(704)에 왕비가 되었다. 이 때 첫째 왕비와 관련된 세력이 성덕왕의 추대세력으로 상정되는 까닭은 그의父와 관련해서이다. 嚴貞王后의 父는 원대 혹은 원태로도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신문왕 5년에 西原小京의 장관에 있다가 그의 女를 왕비로 납할 때 乘府令, 中侍 등의 중앙요직에 있게 된다. 이것은 中侍 출신의 女가 왕비로 된 첫 예이고 또한 왕의 外戚이라는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왕비의 父는 성덕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추대세력으로 영향력

46) 夏五月, 納乘府令蘇叛(蘇判)④<金元泰>之女爲妃.

47) 『三國史記』 8, 聖德王 3년 三月, 出<成貞>[一云<嚴貞>.]王后, 賜彩五百匹·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 賜之.

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中侍가 되고 그의 女가 왕비로 납하게 되었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들 진골귀족세력은 嚴貞王后로 상징된다고 하겠다.

성덕왕은 그를 추대한 진골귀족세력의 영향을 이와 같이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왕권은 즉위후 상당기간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성덕왕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성덕왕은 즉위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인 5년후 신문왕을 위하여 황복사탑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덕왕이 神文王代의 정치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성덕왕 6년(707)에 中代 첫 번째 왕인 太宗武烈王을 위하여 奉德寺를 만들기 시작했는데,⁴⁸⁾ 이것도 그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성덕왕의 왕권강화란 思想的인 측면에서도 파악이 된다. 성덕왕의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가 典光大王이라는 불교식 王名을 가진 중대 유일의 군주였다는 점이나 성덕왕 4년(705)에

「眞如院을 개창하고, 이때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전당을 세우고 5인의 승려로 하여금 화엄경을 길게 쓰게 하고 華嚴社를 결하였는데… (『삼국유사』 3, 塔像 五臺山萬眞身條)」

라고 하여, 진여원을 설치하여 화엄경을 길게 쓰고 화엄사를 결하였다는 것은 역시 그의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사상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성덕왕이 행한 왕권강화의 노력은 당시 그의 움직임으로 보아 일정

48) 李昊榮은 이러한 성덕왕의 봉덕사 창건과 관련하여 兄弟相續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을 내세워 그의 정통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전제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p. 7)

한 王黨派勢力의 지지와 협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덕왕은 그의 왕권강화작업에 그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인물들에게 특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중용을 하였다.

우선 金順元의 경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김순원은 효소왕 7년(698) 中侍에 임명되었다가 2년 후 파면을 당한 인물이다. 이러한 김순원의 中侍로서 활동을 보면 王權과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여 실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반사건에 연좌되어 중시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곧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소외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효소왕말 김순원의 정치적 입장은 성덕왕대에 이르러 王權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의 女를 성덕왕에게 왕비로 바쳤다는 사실로 바뀌게 되었다. 즉 막강한 세력과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또한 효소왕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몰락한 金庾信系가 성덕왕에 의해 재등장 한다. 김유신의 孫인 김윤중이 이때 등용되어 嚴貞王后가 출궁된 후인 성덕왕 24년(725)부터 中侍를 맡으며, 성덕왕을 도와 그의 왕권강화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여기에서 嚴貞王后의 출궁은 無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嚴貞王后에게는 아들 重慶이 있었다.

「① 12월, 왕자 중경을 태자로 봉하였다.⁴⁹⁾(『三國史記』 8, 聖德王 14년)

② 6월, 태자 중경이 죽으니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⁵⁰⁾(동상, 聖德王 16년)」

위에서 보이듯이 중경은 엄정왕후가 출궁당하기 1년 전에 태자로 책봉되

49) 『三國史記』 8, 聖德王 14년, 十四年, 十二月, 封王子<重慶>爲太子.

50) 『三國史記』 8, 聖德王 16년, 十六年, 六月, 太子<重慶>卒, 諡曰<① 孝 ② 孝 ③ 孝>.

어 살아 있었으므로, 엄정왕후의 경우 출궁의 이유로 無子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엄정왕후의 출궁이 政治的 勢力關係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엄정왕후의 출궁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王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도 神文王・景德王代처럼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에서 왕비를 출궁시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와 같은 점은 앞에서 언급한 엄정왕후 父의 정치적 위치와 세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효소왕말 이후의 세력교체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왕권의 제약을 받아왔던 성덕왕의 정치가 金順元으로 상징되는 왕당파세력의 협력을 받으면서, 嚴貞王后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진골귀족세력을 제거한 이후 비로소 전제왕권의 극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孝成王

孝成王은 聖德王이 마련해 놓은 신라의 극성기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효성왕대는 6년이라는 그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王妃를 둘러싼 알력이라든지, 同母弟인 景德王이 비정상적으로 태자로 책봉되고, 이후 효성왕의 죽음이 잇달아 일어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혼란은 효성왕대 朴氏왕비의 재등장으로 박씨를 포함한 진골귀족세력과 전제왕권의 대립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먼저 효성왕의 왕비기록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

「① 妃는 惠明王后로 眞宗角干의 女이다.(『三國遺事』 1, 王曆 孝成王)

② 2년 봄 2월, 당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서를 내려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⁵¹⁾

③ 3년 3월, 이찬 순원의 딸 해명을 왕비로 맞았다.⁵²⁾

④ 4년 봄 3월, 당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부인 김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⁵³⁾

⑤ 8월, 파진찬 영종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되었다. 이보다 앞서 영종의 딸이 왕의 후궁으로 들어오자, 왕이 그를 몹시 사랑하여 은총이 날로 심하였다. 왕비는 이를 질투하여 자기 친척과 함께 그녀를 죽이려 하였다. 이리하여 영종이 왕비와 그의 친척 무리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어 반역을 한 것이다.⁵⁴⁾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효성왕 2년에 박씨왕비로 책봉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효성왕의 첫째 왕비로 진종 혹은 영종의 女로 불리는 인물임을, 두 번째 왕비는 효성왕 3년에 들어온 김씨 왕비로 순원의 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효성왕이 첫째 왕비로 박씨세력을 택한 이유로는 성덕왕의 왕권강화정책에 관련하여 참여한 왕당파 사람들의 정치적 실권장악에 대한 불만을 볼 수 있다. 즉, 성덕왕의 측근세력인 母后와 관련된 이들 세력이 너무 강대하여 그 당시의 정치를 주도하는 등 왕권을 제약하는 한 요소로까지 성장하자 왕실측근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운 세력인 박씨세력에 관심을 갖고 그 세력의 女와 혼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강한 세력을 가진 金順元·金義忠 등 왕당파세력의 반발로 신충의 中侍 임명, 김순원의 女의 입궁, 憲英의 태자책봉 등 일련의 상황이 일어났다. 김순원 女의 입궁은 성덕왕 19년에 그의 女를 처음 왕비로 바친 이후 효성왕대에도 그의 女가 후비가 되어, 계속된 外戚의 지위를 누리며 상당한 정치적

51) 『三國史記』 孝成王 二年, 春二月, <唐>遣使, 詔冊王妃<朴>氏.

52) 『三國史記』 孝成王 三年, 三月, 納伊瀆<順元>女<惠明>爲妃.

53) 『三國史記』 孝成王 四年, 春三月, <唐>遣使, 冊夫人<金>氏爲王妃.

54) 『三國史記』 孝成王 八月, 波珍瀆<永宗>謀叛, 伏誅. 先是, <永宗>女入後宮, 王絕愛之, 恩渥日甚. 王妃嫉妬, 與族人謀殺之. <永宗>怨王妃宗黨, 因此叛.

실력을 행사하는 등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5) 景德王

景德王 憲英이 즉위하게 된 과정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① 2월, 왕의 아우 현영을 파진찬에 임명하였다.⁵⁵⁾

② 여름 5월, 파진찬 현영을 태자로 봉하였다.⁵⁶⁾

③ 경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현영이며, 효성왕의 동복 아우이다. 효성왕이 아들이 없으므로 현영을 태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한 것이다.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다.⁵⁷⁾」

위의 기록에 의하면 효성왕 3년 2월에 파진찬이 된 현영은 효성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후에 태자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효성왕의 동모제인 그가 효성왕의 사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효성왕에 의하여 태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순원이 그의 女를 納한 이후 전개된 박씨왕비와의 대립속에서 보다 더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역시 그의 女에게서 태어난 현영을 통해서, 태자책봉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미 효성왕 3년 5월에 현영이 태자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러한 무리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상당한 배경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한다. 그 배경세력은 현영의 비정상적인 태자책봉과정과 첫째 왕비인 영종의 女의 제거에도 효성왕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할만큼 강대한 것으로 김순원 세력일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55) 『三國史記』孝成王 三年, 二月, 拜王弟<憲英>爲波珍湊.

56) 『三國史記』孝成王 三年, 夏五月, 封波珍湊<憲英>爲太子.

57) 『三國史記』경덕왕 원년 <景德王>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 妃伊湊<順貞>之女也.

그리고 영종의 모반이 실패한 2년 후 효성왕은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죽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정치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김순원세력의 협력을 받아 태자가 되었던 헌영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즉위하게 된 경덕왕 헌영은 이후 眞宗, 思仁, 信忠 등 이들 세력의 도움을 받아 새로이 義忠의 女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등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이 경덕왕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金邕이다. 김웅은 景德王·惠恭王代에 활동한 인물로 경덕왕 19년 이후 中侍 등의 정치상 요직을 역임하였고 혜공왕 10년(774)까지는 성덕대왕신종 제작의 총책임자같은 막중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中代末 專制主義에 반대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진골귀족으로 당시의 반전제주의운동을 주도해 나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김웅이 반전제주의 세력 속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그는 경덕왕의 첫째 왕비와 친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웅이 반전제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 원인을 알아봄에 커다란 단서를 준다.

경덕왕의 왕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록이 있다.

「①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다.⁵⁸⁾(『三國史記』 9, 경덕왕 즉위년)

② 先妃는 三毛夫人으로 出宮하여 後嗣가 없었다. 後妃 滿月夫人은 (중략) 義忠 角干의 딸이다. (『三國遺事』 1. 王曆 景德王)

③ 아들이 없어서 廢하였으며 沙梁夫人에 封하였다. 後妃는 만월부인이다.(『三國遺事』 2,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④ 여름 4월, 서불한 김의충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⁵⁹⁾(『三國史記』 9, 경덕왕 2

58) 『三國史記』 9, 경덕왕 즉위년 妃伊飡<順貞>之女也.

59) 『三國史記』 9, 경덕왕 2년 二年, 夏四月, 納舒弗邯<金義忠>女, 爲王妃.

년)」

이상의 기록을 보면 경덕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왕비는 삼모부인으로 父는 순정이라고 하였다. 이 첫째 왕비는 일찍 출궁당하였는데,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경덕왕 2년(743) 이전으로 생각된다. 이후 義忠의 딸인 만월부인이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다.

그런데 경덕왕의 첫째 왕비인 삼모부인은 父인 金順貞을 중심으로 하여 김웅과 혈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삼모부인은 순정의 딸인데, 아래의 기록에 따르면 김웅 또한 순정의 孫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孫이라고 한 데 대하여는 孫子, 子 등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순정의 子로 생각함이 옳을 듯하다.⁶⁰⁾

「本國上宰 金順貞의 때에 배가 계속 찾아오며 항상 職貢을 바쳤는데 지금 그 孫인 金邕이 位를 이어 執政하여 共奉하였다. (『續日本紀』 33, 寶龜 5년 3월 : 혜공왕 10년)」

삼모부인의 출궁에 대해서는 出宮無後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기록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出宮을 당했다는 두 기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때 경덕왕이 두 번째 왕비인 만월부인에게서 아들을 얻고자 노력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첫째 왕비의 無子라는 이유는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

60) 金邕을 순정의 子로 보는 견해(今西龍, 「聖德大王神鐘之銘」, p. 553 및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p. 13와 孫子로 보는 견해(鈴木靖民, 「金順貞·金邕論」, p. 190)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김웅을 순정을 손자로 보는 견해에는 김웅을 만월부인 혹은 혜공왕과 인척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혼란이 있다. 한편 孫을 그냥 자손의 의미로 파악해 본다면 子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삼모부인과 김웅이 활동한 시기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손자로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김웅을 혜공왕 혹은 만월부인의 父인 金義忠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생각된다.

며, 그것이 출궁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삼모부인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경덕왕에 의하여 출궁당한 시기는 대체로 경덕왕 2년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웅은 삼모부인의 출궁과 함께 경덕왕에 대항하는 반대파가 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덕왕의 첫째 왕비인 삼모부인의 출궁과 함께 반전제주의세력이 된 김웅과 관련되는 세력은 어떠하였을까? 이들 왕비와 관련된 세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金順貞의 경우를 생각하면, 순정은 성덕왕 24년(725)에 사망하였지만, 당시 上宰의 벼슬에까지 오를 정도의 유력한 귀족이었다.⁶¹⁾ 그가 죽은 뒤 딸인 삼모부인이 경덕왕의 王妃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순정의 영향력과 관련된 세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삼모부인과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孝貞을 넣을 수 있다. 경덕왕대 효정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이 있다.

「신라 35대 경덕왕 天寶 13년 甲午에 皇龍寺鐘을 주조하였다. 長은 一丈 3寸이고 厚는 9寸이며 重은 49만 7천 5백 81근이 들어갔다. 施主는 孝貞 이찬과 삼모부인이다.(『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鐘·芬皇寺藥師·奉德寺鐘)」

경덕왕 13년(754)에 皇龍寺鐘이 만들어질 때 시주한 사람은 효정과 삼모부인이었다. 효정은 聖德王代 中侍를 역임한 인물이었지만 경덕왕대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이 효정과 삼모부인은 친족관계가 추측되고 있는데 이때 다량의 銅을 함께 회사한 점으로나, 더욱이 출궁당한 삼모부인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그것은 확실할 것이다. 따라서 효정도 김웅의 세력 속에 포함

61) 구체적으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성덕왕 4년(705) 1월부터 5년(706) 8월까지 중시를 역임한 信貞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된다.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덕왕의 첫째 왕비와 관련되는 인물들은 그들이 역임한 관직에서 볼 때 상당한 세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⁶²⁾

이렇게 막강한 세력의 삼모부인을 출궁시키고 새로이 맞이한 만월왕후는, 성덕왕 후반의 대당외교관계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인물 중의 한사람인 金義忠의 딸로 삼모부인 세력과 대립이 시작된다.

먼저 첫째 왕비와 관련된 세력의 움직임은 보면 오랫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경덕왕의 지속적인 왕권강화책의 실시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경덕왕 13년에 삼모부인과 효정이 황룡사종을 만드는데 다량의 銅을 희사하면서 갑자기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때 이들 세력은 이제 왕권의 전제화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그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이러한 시기는 경덕왕이 聖德王陵碑를 만들고 있는 13년이어서 반전제주의 세력의 움직임과 비교가 된다. 한편 이때 삼모부인과 관련된 세력의 경제력은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황룡사종은 무게가 50만 근인데 비하여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한 성덕대왕신종은 12만근에 불과하였다.

62) 따라서 삼모부인과 관계되는 세력을 살펴볼 때 삼모부인의 세력에 대한 경덕왕의 반발도 왕비출궁의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세력 이외의 요소로서 정치적 성격이 또한 문제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이들 세력이 金順貞과 孝貞에게서 보이듯 모두 성덕왕대 전반기의 정치를 주도한 인물들로, 왕권의 강화보다는 귀족들의 정치를 우선시하였으며, 나아가 외교적으로는 당과의 관련을 맺기 보다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성왕말 박씨세력을 제거하고 경덕왕의 즉위를 가능케 한 왕당파들에게 이러한 삼모부인과 순정세력의 움직임은 경계와 불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한다. 따라서 첫째 왕비의 출궁이란 아들이 없다는 이유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경덕왕의 이들 세력에 대한 정치적 불만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효성왕말 이후의 정치를 지배하던 왕당파세력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단행된 일련의 왕권강화작업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惠恭王

「해공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건운이며, 경덕왕의 적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부인이며 서불한 의충의 딸이다. 왕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여덟살이었으므로, 태후가 섭정하였다.」(『三國史記』 9, 惠恭王 즉위년)⁶³⁾

해공왕의 즉위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해공왕은 경덕왕의 적자로 왕위에 오른 것이며, 金義忠의 딸인 만월부인이 해공왕의 즉위와 함께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해공왕 7년(771)에 만들어진 聖德大王神鐘銘에는 대표적인 반전제주의인 물인 김웅, 김양상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반전제주의 세력은 해공왕초 두 차례의 반란사건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성공한 다음 더욱 크게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반전제주의 세력은 해공왕 15년에 들어와서 무열왕계에 대한 진골귀족세력의 규합을 위하여, 무열왕계와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던 金庾信系와 연결되고 있으며,⁶⁴⁾ 또한 무열왕계 내에서 소외된 세력으로 생각되는 金周元과도 결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⁶⁵⁾

「① 그후 만월왕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은 매우 기뻐했다. 태자가 8세 대에 왕

63) 『三國史記』 9, 惠恭王 즉위년 <惠恭王>立. 諱<乾運>, <景德王>之嫡子. 母, <金>氏<滿月>夫人, 舒弗郎<義忠>之女. 王即位時年八歲, 太后攝政.

64) 성덕왕대까지 활동이 확인되는 김유신계의 세력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해공왕 15년(779)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에 의하여 김유신의 세력에 대한 회복조치가 단행되는 것으로 보아 中代말의 정치적 변혁 속에서 김유신계가 반전제주의 세력에 가담한 사실은 여기에서 확인이 된다.

65) 金周元이 반전제주의자였다는 사실은 李基白,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p. 155 참고.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왕위에 올랐다. 이가 혜공대왕이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太后가 대신 정사를 보살피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미처 막아낼 수 없었다. 表訓의 말이 그대로 맞았다. 왕은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가 하는 짓만 했다.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道士들과 함께 회롱했다. 그러므로 나라에 큰 난리가 생겨 마침내 宣德王과 金良相에게 죽음을 당했다.(『三國遺事』 2,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② 16년, 2월, 왕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들자 음악과 여색에 빠져, 아무 때나 법도를 잃고 놀러 다니며, 기강이 문란하여 재난과 이변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인심이 이반되고 사직이 위태로웠다. 이찬 지정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도를 모아 대궐을 포위하여 침범하였다.

여름 4월, 상대등 김 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지정 등을 죽였다. 왕과 왕비는 이 난리 중에 군사들에게 살해되었다.(『三國史記』 9, 惠恭王 16년)⁶⁶⁾

위의 기록에 의하여 왕당파세력에 의한 혜공왕이 시해진 까닭을 추측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이들 왕당파세력의 혜공왕에 대한 정치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혜공왕은 여성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한때 모후가 섭정하는 등 제대로 정치를 수행해 나갈 수 없었으며, 반전제주의 귀족세력이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허수아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정의 난’ 같은 왕당파세력이 일으켰던 亂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金良相 등에 의하여 진압될 때까지 惠恭王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문왕대에서부터 혜공왕대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

66) 『三國史記』 9, 惠恭王 16년 十六年, 春正月, 黃霧. 二月, 雨土. 王幼少即位, 及壯, 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机隕. 伊滄<志貞>叛, 聚衆, 圍犯宮闕.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滄<敬信>, 舉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謚王爲<惠恭王>. 元妃<新寶王后>, 伊滄<維誠>之女, 次妃, 伊滄<金璋>之女, 史失入宮歲月.

펴보았다. 新羅 中代는 왕권과 진골세력, 그리고 왕권을 지지하는 6두품 등의 왕당파세력의 대립과 다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과정 속에서 상원사종, 봉덕사 종, 황룡사 종 등의 조성은 어떤 정치적 상징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鑄成背景

上院寺鐘과 같은 큰 鐘은 聖德王·景德王·惠恭王 代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鐘은 佛教的 의례나 의식을 위한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鐘을 주성하게된 정치적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上院寺鐘의 鑄成背景

上院寺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의 中臺에 위치한 사찰로 聖德王 4년(705)에 창건하여 眞如院이라 하였다. 이 진여원은 신문왕의 아들인 寶川과 孝明의 두 왕자가 창건하였는데, 《三國遺事》에 의하면, 오대산에 들어간 두 왕자 가운데 형인 보천은 중대 남쪽 진여원 터 아래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 곳에 암자를 짓고 살았으며, 아우 효명은 北臺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암자를 짓고 살았다. 이 두 형제는 예배하고 염불하면서 수행하고 오대에 나아가 항상 공경스레 예배를 드렸으며, 날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 茶를 달여 1만 眞身の 文殊菩薩에게 공양하였다. 마침 新羅의 왕이 죽자 나라사람들이 오대산으로 와서 두 왕자를 모시고 서라벌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보천은 울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으므로 효명을 모시고 서울에 돌아와서 왕위에 추대하였다. 그 뒤 20여년이 지난 705년 3월 8일에 진여원을 처음으로 세웠다. 그 뒤 보천은 오대산을 나라를 돕는 信行結社道場으로 만들 것을 유언하였고, 그 유언에 따라 진여원에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낮에는 《반야경》과 《화엄경》을 독송하게 하였으며 밤에는 文殊禮懺를 행하게 하였다. 또 결사의 이름은 華嚴社라고 하였고 福田 7員을 두게 하였으며, 그 경비는 가까운 州縣에서 주었다고 한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효명은 신문왕과 첫째부인인 김씨부인(김흠돌 女)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의 신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무열왕 이후 계속 상당한 세력을 떨쳐왔던 진골귀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으나 왕으로 되지 못하고 신문왕과 둘째부인인 신복왕후(김흠운 女)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효소왕이 왕으로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金欽突亂의 실패를 통하여 진골귀족세력이 철저한 탄압을 받은 것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효소왕 재위(692~702)시에는 효명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오대산 일대의 불교세력이 탄압 또는 도외시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孝昭王 代가 지나 聖德王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게 된다.

한편, 孝昭王은 太宗武烈王系와 金庾信系의 지원을 받으며 왕위 정통성을 확보하였지만 聖德王은 孝昭王과는 달리 정상적인 왕위계승이 아니었으므로 왕위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성덕왕이 無子가 아닌 孝昭王을 물리치고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덕왕을 지지한 막강한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성덕왕은 어떠한 세력기반을 가진 것일까? 그것은 그를 추대한 ‘국인’ 즉 진골귀족세력과 자신이 왕자의 신분으로 머물러 오대산의 불교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한 것 같다. 이런 관계下에서 聖德王은 왕위에 오른지 3년뒤인 705년에 진여원을 창건하였고, 725년에는 이 시대 최고의 금속주조술과 엄청난 양의 銅이 필요한 거대한 종을 만들어 오대산 불교세력의 격을 높여주는 한편, 이들과 왕권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聖德王은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佛敎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취해 있었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인물과 집단을 측근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닌 오대산의 불교세력에 거대한 종의 주조를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皇龍寺鐘의 鑄成背景

황룡사의 창건은 진흥왕 14年(553年)으로 창건기의 신라정치상황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진흥왕 나이 7세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나이가 어려 법흥왕의 딸인 只召夫人이 섭정을 하였다.⁶⁷⁾ 진흥왕이 즉위한 원년, 지소부인은 태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섭정을 시작하여, 최초로 대사면을 실시하고 문무관료들에게 일급씩 작을 내렸다. 이것은 진흥왕의 즉위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세력들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띠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신과 진흥왕의 군사적 배경이 되었던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임명하여 내외병마사를 담당케 함으로써 불만세력의 위협을 방어하고 여러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는 등 새롭게 정계를 개편하였다.

진흥왕 5년, 伊飡 이사부의 건의에 의해 大阿飡 居柒夫로 하여금 문사를 모아 국사를 편찬케 한 것은, 왕실계보를 정리하여 왕족과 귀족을 혈연적으로 결속시킬 뿐 아니라 中古 新羅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新羅가 유교적인 政治이념에 입각한 당당한 국가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그 후 섭정기에는 法興王 代에 공인된 佛教를 보호·육성하여 고대국가로서의 사상적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면, 진흥왕 자신의 친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三國史記》를 보면, 진흥왕 12년, 봄 정월에 연호를 '開國'으로 바꾸고, 같은 해 3월에는 왕의 순수기사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왕의 친정체제가 시작되었음을

67) 김선주, 「新羅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 『여성과 사회』 9, 창작과 비평사, 1998. p 187.

《三國史記》에는 진흥왕의 즉위 당시 7살, 《三國遺事》에는 15살로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에서는 단지 태후가 섭정을 하였다고만 하지만 진흥왕이전의 왕비인 법흥왕비 보도부인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는 섭정자인 태후는 법흥왕의 입종갈문왕비라고 분명히 지적하였으므로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측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王의 나이 18세가 될때까지 母后의 섭정으로 政事가 이루어졌으며 18세가 되던 재위 12년에 비로소 진흥왕 자신이 直接 政事를 관장하는 親政體制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섭정기의 궁궐을 벗어나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여 명실공히 親政體制의 政事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일면 새로운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궁궐의 창건이 짐작되어 지며 새로운 궁궐의 건립위치가 당시 궁궐이 있었던 月城과 慈悲王(458~468)때 궁궐이 있었던 明活城의 中間位置가 되는 현재의 皇龍寺지 위치가 바로 월성의 동쪽에 해당되며 이 위치가 바로 새로운 궁궐을 짓기위한 新築敷地로 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皇龍寺가 점유할 도성중심의 부지에 따른 문제와 佛敎의 公認,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력이 소모된 점은 新宮의 건립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 왕권신장을 위해선 궁궐보다는 정신적인 지주인 寺刹의 조영이 타당성을 더한다. 이를 두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佛敎신앙의 배경인 「王卽佛」의 호국적신앙⁶⁸⁾을 널리 유포시켜 왕권을 강화시키고, 둘째, 황룡은 鱗蟲의 靈長으로 帝王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알려져 있어 황룡의 출현은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佛寺의 이름을 皇龍寺로 하게 한것은 진흥왕이 帝王으로서의 君臨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皇龍寺의 조영은 新宮과 佛寺의 두가지 뜻을 동시에 충족시킬

68) 李基白, 「新羅初期佛敎와 遺族勢力」, 震檀學報 第40號, 1975. 10.

수 있는 일로 보여지며 당시 엄격한 신분제社會에서 輪廻사상은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이론으로 환영됨으로써 귀족세력의 무마와 동시에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사상체계로 되었고 아울러 新羅佛敎는 호국적인 성격이 강하여졌다.

이와같이 皇龍寺는 新宮의 조영을 佛寺의 조영으로 바꿔짓기 시작한지 14년만인 566년에 건물에 따른 公役을 완료하고 569년에 주위에 담장을 두름으로써 皇龍寺의 일단적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황룡사에 종이 만들어 진 것은 경덕왕 13년(754)에 이르러서 이었다. 皇龍寺鐘을 시주한 사람은 효정과 삼모부인으로 효정은 聖德王代 中侍를 역임한 인물로 景德王代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이 효정과 삼모부인은 친족관계로 김웅의 반전제주의세력에 포함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출궁당한 삼모부인과 함께 다량의 銅을 함께 회사한 점은, 경덕왕의 지속적인 왕권강화책의 실시에 출궁후 아무런 움직임을 이룰 수 없던 이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왕권의 전제화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황룡사종의 주조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더욱이 이 시기는 경덕왕이 만월부인세력과 함께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고 있는 시기여서 더욱 그러하다. 삼모부인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황룡사종은 무게가 50만근인데 비하여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한 성덕대왕신종(물론 경덕왕대에 이루지 못하고 혜공왕대에 이르러서 완성되었지만)은 12만근에 불과한 것을 보아 삼모부인세력은 대단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룡사종은 경덕왕의 전제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김웅과 삼모부인의 반전제세력에 의하여 조성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권력을 왕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3) 奉德寺鐘의 鑄成背景

奉德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두가지 기록이 있다.

첫째는, 제 33대 聖德王 新 2년 丙干(7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했다. 丁未年(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 사람앞에 하루 석되씩을 규정으로 삼아 구제 사업을 마치고 계산을 하니 모두 30만 500석이나 되었다. 왕은 태종대왕을 위하여 奉德寺를 창건하고 7일 동안 인왕도량을 설치하고 죄수들을 사면하였다.⁶⁹⁾

둘째는, 제 35대 경덕왕은 黃銅 12만근을 회사하여 父王인 聖德王을 위하여 大鐘을 조성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惠恭王 大歷 戊年(770) 12월에 有司에게 명하여 장인을 모아 이를 완성시켜 奉德寺에 안치하였다.

상기의 기록에 의하면 《三國遺事》의 저자 일연은 同一한 奉德寺의 창건 연대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奉德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聖德王 6년에 착공하였으나 어떤 사정이 있어 중단되었다가 효성왕 2년 부왕의 사업을 계승한 효성왕에 의해 완공되었고, 奉德寺의 창건이 늦은 것은 聖德王代 의 20여년간 계속된 天災 災異 때문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의 견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奉德寺의 창건은 新羅中代 왕실의 창시자인 태종대왕 즉 무열왕을 追福과 계속되는 흉년이라는 재해에 대한 신앙적 측면의 대책으로 보여진다. 무열왕에 대한 追福은 단순히 무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廟堂의 성격이 아니라 中代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聖德王의 의도가 담긴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聖德王의 전제 왕권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도 일맥상통한다.⁷⁰⁾ 그리고

69) 《三國遺事》卷 2, 紀異 편, 聖德王 條.

이러한 시책의 한가지로 왕비인 삼모부인을 폐하고 만월부인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덕대왕신종 銘文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주지해야 할 사실은,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한 시기는 경덕왕과 그 전제왕권 지지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던 때 이었고, 종의 완성은 혜공왕 7년(771)으로 이 시기는 新羅 中代 專制王權을 옹호하던 세력은 완전히 정권에서 몰락하여 모두 실정권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러므로, 성덕대왕신종 명문에 나오는 주종책임자나 관료들은 경덕왕대 성덕대왕신종 주종을 지원하였던 인물이라기 보다는 혜공왕대 김웅의 반전체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산대부겸 태자조의랑 한림장 김필오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지음.

대개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밖을 포함해 있으면서도 아무리 보아도 그 근원을 볼 수 없고, 큰소리는 천지 사이를 진동하니 아무리 들어도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설을 듣고 이를 통해 삼진의 깊은 뜻을 보고 신종을 매어 달아서 일승의 둥근 소리(불타의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깨치는 것이다. 대개 그 종이란 불토에 상고해 보면 그 정형은 계빈에 있고 제향에 찾아보면 고연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비어도 잘 울어서 메아리는 쉬지 않고 다시 울리기 어려워 그 체를 더욱 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왕은 큰 공을 그 위에 새기고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는 것도 그 가운데 있다.

성덕대왕은 그 덕이 산하와 함께 높고 그 이름은 해와 달과 같아서 높이 달였다. 충량한 신하를 써서 속인들을 어루만지게 하고, 예악을 높이어 풍월을 보았

70) 金英美, 「聖德大王神鐘에 대한 일고찰」 『梨花史苑』 22·23 합집, 1988.

다. 들에서는 농사에 힘쓰고 시장에서는 잡된 물건이 없었다. 그 시대가 금옥을 꺼려하고 세상이 文才를 숭상하였다. 뜻밖에 아들이 돌아가서 늙은이는 조심하여 40여년 동안 나라 정치에 힘써서 한 번도 전쟁으로써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방이 이웃나라요 만리안의 사람들이 손으로 돌아와서 오직 그 가르침을 흠양할 뿐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중국의 연나라와 진나라의 사람을 쓰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번갈아 패왕이 되었으니 어찌 수레바퀴와 굴레를 나란히하여 말하겠는가. 그러다 쌍수에서 돌아가심을 헤아리기 어렵고 오랜 세울의 밤은 길기 쉬워서 임금의 수레를 편안히 한지도 벌써 34년이다.

지난번에 효도스런 아들 경덕대왕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업을 이어받아 온갖 정치를 감찰하였다. 일찍이 자진이 돌아가서서 세월을 따라 그리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대궐에 나아갈 때마다 슬픔이 더하여 조상을 생각하는 정이 더욱 슬프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그리하여 구리쇠 12만근을 내어 1장종 하나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뜻만 세우고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지금 우리 성군은 그 행실이 조종에 맞고 지극한 이치에 뜻은 부합하여 특별히 천고에 상서롭고 덕은 보통때에 뛰어나 여섯거리에서는 용의 구름으로써 가만히 옥계에 뿌리고 구천(하늘)에 천둥이 치고 대궐에 메아리 울린다. 초목의 숲은 바깥 경계에 무성하고 흐리지 않은 빛깔은 서울에 번쩍이니 이것은 곧 탄생한 날의 알람이요 정치에 나아갈 때에 응한 것이다.

생각하면 태후는 은혜가 땅처럼 평평하여 어진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마음은 하늘 거울과 같아서 부자의 효성을 장려한다. 이로서 아침에는 원구의 어짊을 알겠고 저녁에는 충심의 도움을 알겠다. 가리지 않는 말이 없으며 무슨

행의 허물이 있으리오, 이에 유언을 남기어 드디어 숙원을 이루었다.

나는 그 유시를 지켜 일을 분변하고 공장을 지켜 그리고 하니 그 해는 해년
이요 달은 대력이었다. 이때에 해와 달이 더욱 빛나고 음과 양은 기운을 고르
니 바람은 화하고 하늘은 고요하였다.

신기(중)가 이에 되니 그 모양은 산처럼 우뚝 서고 그 소리는 용이 읊조리는
것 같아서 위로는 유정천(하늘의 제일 높은 곳) 꼭대기에 사무치고, 밑으로는
밑이 없는 범위에 통하니 보는 사람은 기특하다 일컫고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
다.

원컨데 이 묘한 인으로써 높은 영을 받들어 도와 보문(널리 들음)과 맑은 메
아리를 득고 무설(말함이 없음)의 법의 자리에 올라서 삼명(해·달·별)의 훌륭한
마음에 맞고 일승의 참경지에 놓인다.

심지어 옥의 꽃반침의 떨기와 금가지가 길이 무성하여 나라의 업이 천리산
처럼 더욱 번창하고 유정과 무식의 슬기의 바다에서 물결을 같이하여 모두 티
끌 세상에서 나오고 다함께 깨달음의 길에 오르소서.

신(필요)은 웅졸하고 재주가 없지만 감히 왕명을 받드오니 반초의 붓을 빌리
고 육좌의 말을 따라서 그 원하는 뜻을 진술하여 이 종의 명을 쓴다.

한림대서생 대나마 김부환 씀

그 가사에 이르기를

하늘은 온갖 형상을 나타내었고 땅은 방위를 열었도다. 산천은 벌려 쪼고 구
획은 갈라졌다. 동해의 위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땅은 도원에 있고 경계는 부상에 대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 모두 한 고
을이 되었다. 근본이 거룩한 덕이요, 대마다 더욱 새롭고 오묘한 맑은 교화에

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두 왔도다. 그 은혜 멀리 입히매 물건마다 고루 적시었다. 성하여라 일천 잎이여 모두 인륜에 편안하였다.

근심 구름이 갑자기 닥치어 슬기와 해와 봄이 없었다. 공손스런 효자 아들이 그 업을 받아 정치할 때에 옛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니 그 꿈엔들 어찌 어긋나리. 날마다 아버지 교훈을 생각하고 언제나 어머니 빛을 사모한다. 여기에 다시 복을 닦으니 종만들기를 기원하였다. 기록하여라 우리 어머니여 그 느낀 덕이 가볍지 않았다.

보배로운 상서는 자주 나오고 신령스런 부적은 늘 생겼다. 임금이 어질때 하늘이 도와 나라는 평안하고 때는 태평하였다. 날로 부모의 엄한 교훈을 생각하며 마음을 따라 원을 이루었다.

이에 유언을 남기니 여기 이 종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과 신이 힘을 다하여 보배로운 종이 형상을 나타내니 악마와 귀신을 다 항복받고 고기와 용을 구원하였다.

해뜨는 골짜기에 명을 떨치고 북쪽 봉우리에 맑은 소리 울렸다. 보고 듣는 이가 모두 믿어하니 꽃다운 인연이요 진실한 종자였다. 뚜렷이 빈 신령스런 몸이여 비로소 성인의 발자취를 나타냈다. 이 커다란 복을 언제나 더욱 소중히 하라.」⁷¹⁾

명문의 내용으로 필자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해공왕 7년에 이르러서 해공왕의 母인 만월부인이 섭정을 하고는 있으나 실권은 김웅의 반전제세력이 가지고 있음을 명문에 기록된 관료들의 성격으로 알 수 있었고, 둘째, 만월부인과 해공왕은 성덕대왕신종을 통하여 기울어진 왕권을 바로잡고 반전제세력

71) 한국문화재연구소, 『韓國의 梵鐘』, 1996. pp 243~244 참조.

을 제거하기를 바랐다. 즉 성덕왕의 명복을 비는 봉덕사에 거대한 종을 만듦으로 전제왕권 최성기였던 聖德王代の 복을 기원하고 반전제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셋째, 성덕왕을 받드는 이런 작업들로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넷째, 「성덕대왕신종」 그 명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神鐘이란 신성한 神物을 만들어 마치 만파식적처럼 천하를 대평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鐘銘의 첫머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一乘의 圓音이란 진리를 종소리로 들음으로써 중생을 깨치게 하려는 불교적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 中代 범종의 주성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와 함께 그 시기 종의 주성목적을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종의 주성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덕대왕신종의 경우, 경덕왕은 중앙집권적 왕권이 새로운 귀족 세력의 부상으로 흔들리게 되자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관제 정비와 개혁 조치를 취하였고, 그 개혁의 주역은 경덕왕과 행정 책임자였던 執事部の 中侍였다. 그러한 大勢에서 중앙집권화하여 정치적 안정과 그에 따른 문화적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한 성덕왕의 위업을 기리고 왕권확립을 다짐하기 위하여 경덕왕은 신종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예로는 진시황이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거국적인 祝宴과 함께 나라의 모든 무기를 몰수하고 함양에 모아 녹여서 무게 千石(23톤)의 종과 銅像 12개를 만들어 궁중에 안치한 것이 있다. 진시황이 무기를 녹여 종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전쟁과 불화는 없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띄며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기겠다는 염원 또한 담겨 있다.⁷²⁾

72) 이주훈 역, 司馬遷 『史記』, 배재서관, 1987.

둘째,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덕대왕신종의 鐘銘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³⁾ 첫머리에 나오는 ‘一乘의 圓音’에서 ‘一乘’은 신라 고승 義湘의 저서 ‘一乘法界圖’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며, 圓音이란 「화엄경」에 근거한 眞理의 내용임을 보아 「화엄종」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상의 화엄종은 신라의 왕실종교로써 자리잡았으며 화엄사상의 전파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셋째, 후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옛부터 종과 술에는 銘을 지어 새기는 전통이 있었다. 조선왕조의 수도인 漢城의 중심부에 세워져 있던 종루의 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⁷⁴⁾

“조선조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운지 3년에, 도읍을 한강 북쪽에 정하고, 그 이듬해에 비로소 궁전을 지었다. 그 해 여름에 관원에게 명하여 큰 종을 만들게 하고, 완성된 다음 집을 큰 시가에 짓고 종을 달았는데, 성공한 사실을 기록하여 큰 사업을 후세에 전하려 함이었다. 옛날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큰 공을 세우고, 큰 사업을 정하면 반드시 종과 술에 銘을 지어 새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땡땡·둥둥하여 후세 사람들의耳目을 깨우치게 하며, 또 넓은 도시의 큰 고을에서 새벽과 저녁에 두드리고 쳐서, 백성들의 일하고 쉬는 시간을 엄하게 하니, 종의 용도가 큰 것이다. 우리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덕망이 날로 높아져, 천명과 인심의 돌아감에 자연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여러 어진 이들이 힘써 도와서 모두 그 지혜와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고려조를 대신하여 나라를 세우시고서는, 밤낮으로 염려하시며 법

73) 『성덕대왕신종』 제2회국제학술대회, 1998.

7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989. 종의 서문은 권근이 썼으며, 2층 종루는 태조 4년에 5칸×4칸 규모로 세워졌다.

을 세우고 질서를 마련하여, 자손 만대의 태평을 터 닦았으니, 공을 세웠다 할 만하고, 사업을 정하였다 할 만한 것으로서, 이것을 銘으로 새겨 소상하게 후세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후략) ...」

IV. 新羅의 音樂과 政治

新羅에 있어서 음악은 佛敎의인 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는데, 伽倻琴의 전래를 계기로 하여 크게 발달하였다. 伽倻琴은 대가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6세기 중엽에 악사 于勒에 의하여 新羅에 전해져서 마침내 大樂(일명 宮中樂)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新羅音樂은 계속적인 발전으로 唐과 日本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于勒이 新羅로 와서 伽倻琴을 전래함⁷⁵⁾으로서 新羅의 음악이 발달하였다는 대목이다. 于勒이 있던 국가는 가야국으로 伽倻琴은 그 나라의 보물이요 상징물이다. 이러한 伽倻琴을 가야국이 망하기 전 于勒이 新羅로 와서 伽倻琴을 바쳤다니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국은 「소리」 즉, 질서있는 음악으로 국가를 통치하였고 新羅 역시 이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의 「만파식적」에서 이러한 이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만파식적은 《三國遺事》권 2 기이편 萬波息笛 條와 《三國史記》卷32 잡지 제1악조에 관련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萬波息笛은 新羅 제31대 신문왕 2년(682)에 용으로부터 영험스러운 대나무를 얻어 피리를 만든 것으로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져서, 萬波息笛이라 이름을 붙였다. 위 기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가에 감은사를 지었다. 신문왕 2년에 해관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고 하여 일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보니, 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가서 받으라 하였다. 이견대에 가해보니, 浮山은 거북머리 같았고 그 위

75) 《三國史記》新羅本紀

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萬波息笛으로 나라가 평안해지자 萬波息笛을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그 뒤 효소왕때 異蹟이 거듭 일어나, 만만파파식적이라 하였다.」

萬波息笛은 악기로서 단군신화의 天符印, 진평왕의 天賜玉帶, 이성계의 金尺 등과 같이 건국할 때마다 거듭 나타난 神物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면 신문왕은 이런 神物이 왜 필요하였을까?

통일을 이룩한 文武王에 이어서 즉위한 神文王은 政治的 힘의 결핍과 日本의 침입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한 예를 《三國史記》76)에서 찾아 보면 「신문왕 원년(681년) 8월에 소판 김흠돌, 파진찬 興元, 대아찬 眞功 등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에 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반란을 진압하고 소판 김흠돌의 딸인 妃를 궁정에서 내보냄으로 외척세력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신문왕의 政治的 불안감은 여전하였고 이것을 타결하기 위하여 지배층의 정통성과 동질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물이 萬波息笛이었다. 만파식적의 설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萬波息笛을 신문왕에게 전해주는 이가 문무왕과 김유신이라는 문제와 둘째, 권위를 실을 神物을 왜 피리라는 악기로 결정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 의문점을 살펴보면 《三國遺事》77)의 기록에서 萬波息笛을 주는 이는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과 김유신으로, 여기서 다른 神이나 영물이 아닌 문무왕과 김유신이 언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었다.

76)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八

77) 《三國遺事》紀異 第2 萬波息笛 條

그것은 앞 장의 「2. 新羅中代の 王位繼承과 권력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왕을 지원하는 세력이 태종무열왕계와 김유신계이기 때문이었다. 이 두 세력이 힘을 단결하여 지배층의 정통성을 확립하였고 論功行賞을 하였다. 萬波息笛이라는 神物은 신문왕에게 권위를 실어주었고 政治적 안정을 찾게 하였다.

두 번째 의문은 악기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音樂思想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古代 音樂思想은 어지럽고 불협화음보다는 협화음을 중시하여 정치에서도 모든 세력이 서로 조화로운 가운데 통치가 되도록 기원하였는데, 萬波息笛은 불협화음 즉 통치세력간의 분쟁이나 반란 등을 질서있는 소리 즉 협화음으로 평안하게 만든다는 이념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이런 이념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이것은 「鐘」의 아름다운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성덕왕 재위시 신화적 권위와 전제왕권이 약화를 새로운 神物的 권위상징물과 왕권강화책으로 「鐘」이라는 악기를 선택하였다. 거대한 大鐘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력과 名工들이 필요한가. 이런 막대한 자원과 기술의 결과물인 종의 종소리는 만파식적처럼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萬波息笛에서 鐘으로 代를 이어가는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 新羅三寶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新羅三寶는 皇龍寺丈六像, 天賜玉帶, 皇龍寺九層塔으로써 新羅의 護國을 상징하는 국가적인 세가지 보물이다. 新羅 中古期에 성립된 것으로 新羅의 政治이념과 국민정신의 통합에 큰 영향을 끼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왕권이 약하거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집권세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나타났다. 新羅三寶라는 神物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고 왕실종교이던 佛敎를 당시 政治理念에 반영하여 佛敎의 正법왕국사상을

78) 이 같은 이념은 中國 『論語』의 「향당편」과 「양화편」에도 보인다.

표방하였다. 이렇게 中古期의 新羅는 神話를 완성시켰으며 통일기가 되어 새로운 신물이 필요성에 鐘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우리나라에 佛教가 中國으로부터 전해지면서 佛教寺刹에는 어떤 형식의 鐘이든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佛教가 中國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鐘도 초기에는 中國鐘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新羅時代에 창안된 韓國鐘은 中國鐘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형식의 鐘이었다.

新羅時代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中國에는 唐이 막강한 국력과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등의 열강이 있었다. 이에 신라는 初期에 국력증강과 문화교류에 힘을 기울였고, 그 후 삼국통일을 완성하고는 문화발전에 주력하였으므로, 新羅時代에는 우리나라 史上 最高의 문화유산들이 창출하게 되었다.

특히 統一新羅시대에는 佛教가 國教였으므로, 新羅文化의 지류에는 佛教的 색채를 띤 각종 걸작품이나 예술품이 창조되는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鐘도 그 중의 일례라고 볼 수도 있다. 종의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은 성덕대왕신종 명문이 화엄경을 근거로 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후세에 남기려는 기록적인 성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몇 십만근이나 되는 銅과 이 시기 最高 주조술을 투입하며 종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新羅中代 政治史에서 풀어 보고자 시도하였고,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 고찰한 신라종과 신라중대정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었다.

첫째, 성덕왕은 그를 ‘국인’으로 추대한 진골귀족세력과 자신이 왕자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던 오대산 불교세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왕권지지세력의 권력확충과 왕권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는, 진여원 창건(705년)이 있었고

上院寺鐘 銘文이나 문헌에 직접적 기록은 없으나 성덕왕이 상원사종의 주종에 깊이 관여 또는 지원하였을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둘째, 皇龍寺鐘은 효정과 삼모부인의 시주로 조성되었다. 이들이 50만근이나 되는 銅을 회사하면서 황룡사에 종을 만든 이유로는 첫째, 경덕왕의 첫째왕비이던 삼모부인이 출궁하게되고 만월부인이 들어오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삼모부인세력과 효정 등은 김웅의 반전제주의세력에 포함되었고, 자신들의 세력이 왕권의 전제화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자, 황룡사종의 주조를 통하여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봉덕사종의 조성은 만월부인과 혜공왕이 神鐘을 통하여 기울어진 왕권을 바로잡고 반전제세력 제거를 바램으로 조성되었고, 왕위의 정통성 인정과 神物的 권위를 성덕대왕신종으로 이루어내어 왕권강화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왕위의 정통성확립과 권위상징을 鐘이라는 악기로 선택한 이유는 新羅三寶와 萬波息笛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신라삼보와 만파식적은 신라의 護國을 상징하는 국가적 보물로서 왕권이 약하거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나 집권세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를 무마시키는 神物로 나타났다. 新羅中代에 이르러는 이런 神物들의 神話가 퇴색되었고, 백성과 집권·지방세력에게 직접 보여주고 들려줄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鐘이었다. 종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원하였고, 완벽한 화음으로 정치에서의 불협화음을 사라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렇게 신라의 종은 탄생하였고 후대부터는 중국·일본종과는 다른 신라종이라는 양식적 정형화가 이루어졌으며, 전제왕권 강화책과 그에 反하는 反專制勢力의 세력과 시 등의 세력다툼 속에 신라중대에서는 계속적인 종의 주성이 이루어 지게 된다.

參考文獻

I. 史料

- 李丙燾 校勘,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이민수 校勘,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97.
이주훈 역, 司馬遷 『史記』, 배제서관, 198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989.

II. 단행본

1. 國文

-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94.
文明大, 『韓國彫刻史』, 열화당, 1989.
廉永夏, 『韓國鐘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_____,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한국문화재연구소, 『韓國의 梵鐘』, 1996.

2. 日文

-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_____, 『梵鐘』, 學生社, 1976.

III. 논문

- 郭東海, 「新羅 梵鐘의 龍鈕에 관한 研究 : 韓國 梵鐘의 起源問題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선주, 「신라의 여성정치가 지소태후」『여성과 사회』 9, 1998, 창작과 비평사.
- 金英美,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합집, 1988,
- 金嬉庚,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梵鐘』 10, 韓國梵鐘研究會, 1987.
- _____, 「韓國梵鐘小考」『考古美術』 136·137, 韓國美術史學會, 1978.
- 申瑩植, 「新羅中代 專制王權의 展開過程」『汕耘史學』4,, 1990.
- _____, 「新羅中代 專制王權의 特質」『汕耘史學』4, 1990.
- 辛鍾遠, 「新羅 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崔永禧紀念史學論叢』, 探求堂, 1987.
-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 50, 1980.
-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震檀學報』 25·6·7 合併號, 1964.
- _____, 「新羅初期佛教와 遺族勢力」, 震檀學報 第40號, 1975. 10.
- _____,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韓國史講座』고대편, 一潮閣, 1982.
- 李文基, 「新羅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歷史教育論集』 9, 1986.
-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考古美術』125, 韓國美術史學會, 1975.
- _____,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史學志』 8, 1974.
- 鄭永鎬, 「韓國銅鐘의 特性과 樣式變遷」『金屬工藝』韓國의 美 23, 中央日報社, 1985.
- 朝鮮古蹟調查研究會, <扶餘 軍守里廢寺址 發掘調査>『古蹟調查報告』, 1936.
- 黃壽永, 「新羅梵鐘과 萬波息笛 說話」『梵鐘』 5, 韓國梵鐘研究會, 1982.
- _____, 「新羅의 梵鐘」『梵鐘』 10, 韓國梵鐘研究會, 1987.
- _____, 「五臺山 上院寺 同鐘의 搬出寺實」『歷史學報』 16, 1961.

_____, 「新羅實相寺銅鐘調查記」『考古美術』, 1965.

IV. 도록

『국보』 5 - 공예편, 웅진출판사, 1995.

V. 보고서

『황룡사』 유적조사보고서 I,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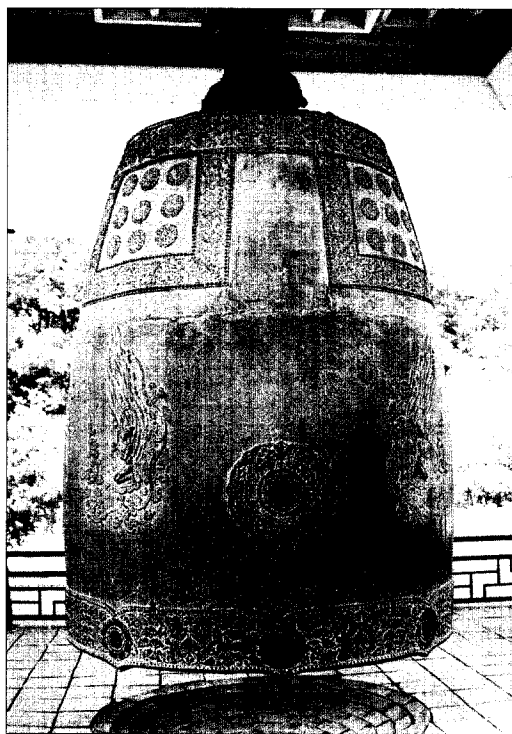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6.



도 1) 상원사동종



도 2) 상원사동종 주악비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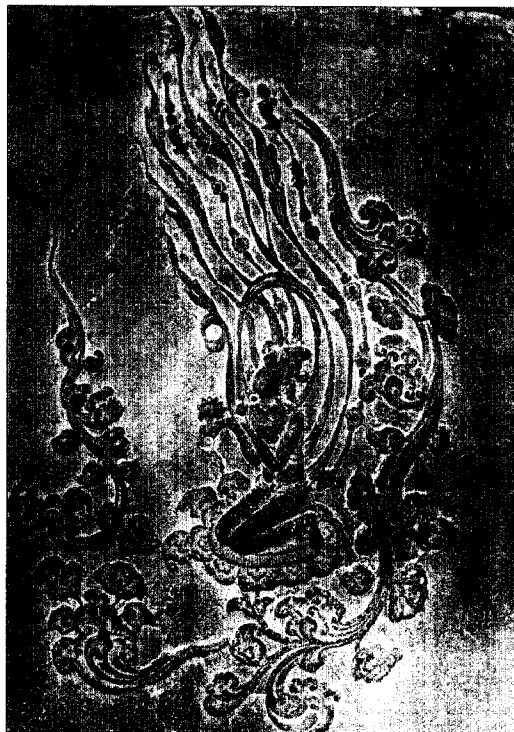
도 3)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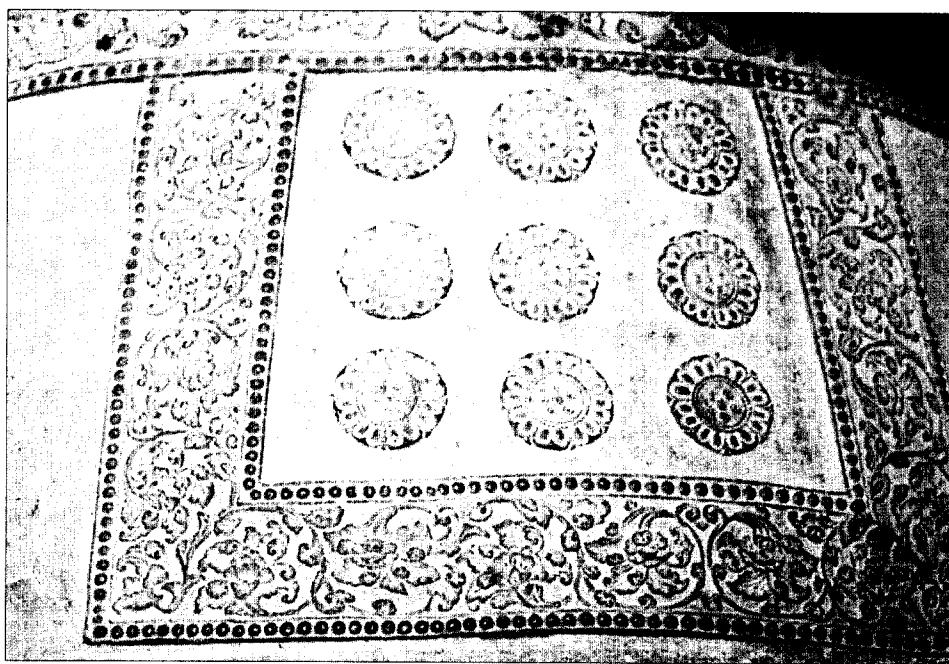
도 4) 봉덕사종의 용뉴



도 5) 봉덕사종의 口緣 보상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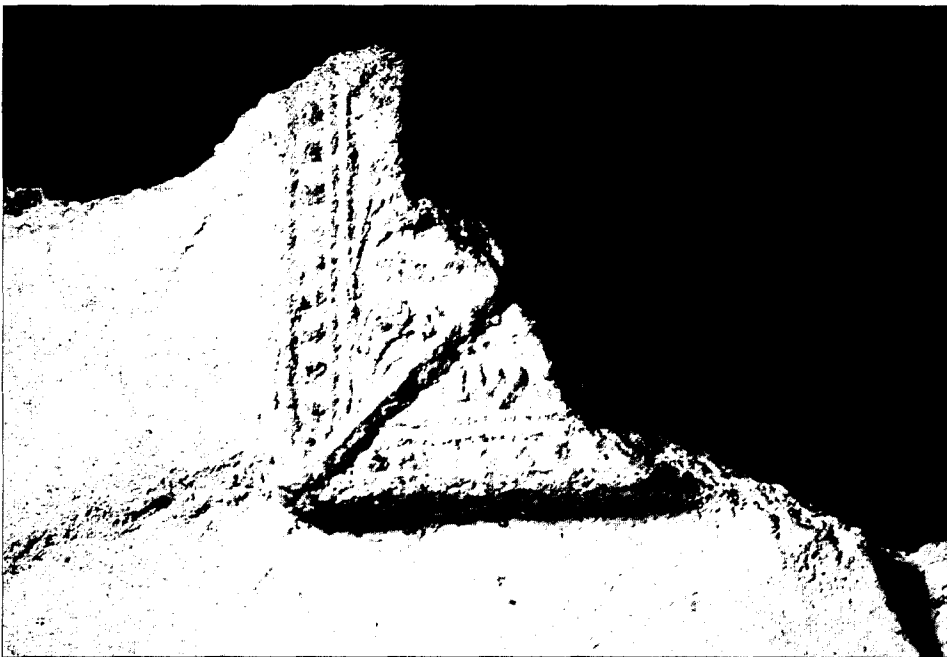
도 6) 봉덕사종의 비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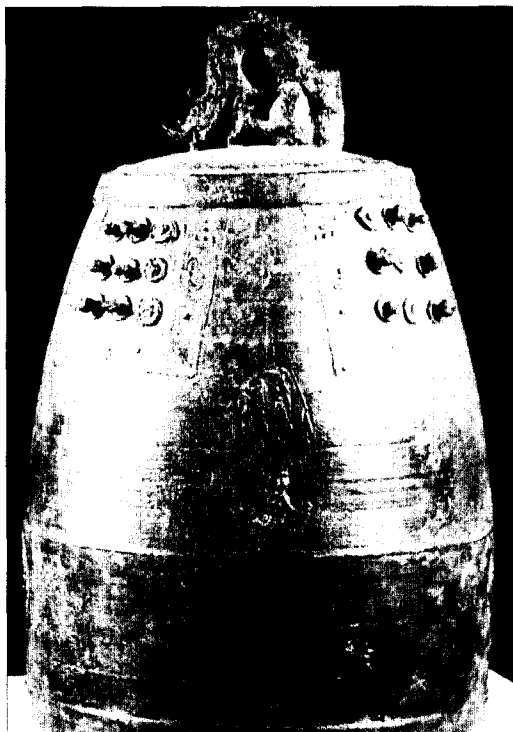
도 7) 봉덕사종의 유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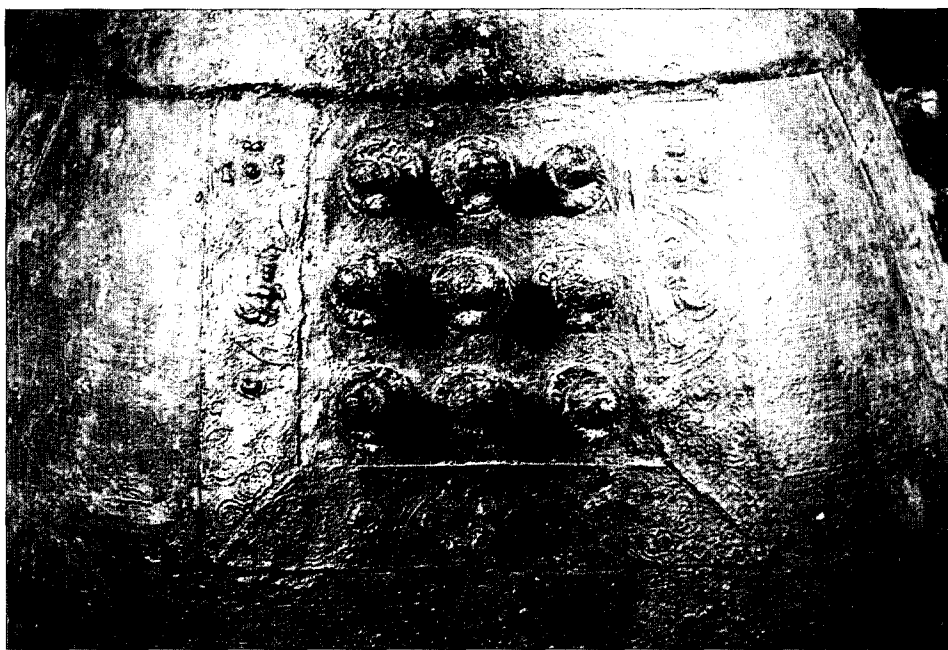
도 8) 실상사파종



도 9) 실상사파종의 유곽대



도 10) 청주박물관 소장 종



도 11) 청주박물관 소장 종의 유곽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Moulding Buddha's Bell in the middle of Silla Kingdom

Guang-soo Kim

Department of the Cultural Assets

Ky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irected by professor Kang-geun Lee

ABSTRACT

Buddha's bell is the most typical of four Buddhist instruments in temple, which related to the theory that it facilitates the realization of all human beings and creatures, leading to salvation.

Though the bells in oriental three countries, Korea, China, Japan have similarity in shape, there are peculiarities in Korean ones.

In this thesis, the background of moulding bells will be considered in view of social, political aspects, while looking over the effects of other theses which have chiefly been based on shape theory.

For this purpose, the actual states of bells and bell-pavilion in Unified Silla was investigated first, compared with ancient Japanese Buddha's bells later.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moulding bells and the succession of throne in the early period of Unified Silla was

investigated, what is more, tried to dig up its connection with Silla music and polices.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tical policies in Silla and various bells such as Sangwonsabell, Hwangyongsabell, Bongduksabell are as follows.

First, King Sungduk was able to be a king through the help of Jingol, the most noble-blooded class and Kukin, enthusiastic followers. Another supporting group was Odae-Mountain Buddhists that he had stayed in as a prince status before. The foundation of Jinyeowon Temple(眞如院) and Sangwonsabell reflects combination of supporters and royalty,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ower. Though this was neither inscribed in Sangwonsabell nor written in anybook, we can presume from the fact that King Sungduk concerned deeply and assisted in moulding the bell.

Secondly, Hwangyongsabell was founded by the contribution of Kim Hyojeong and Sammo. The reason they donated as much as 500,000guns(斤) of bronze for the foundation of the bell was as follow.

Though Lady Sammo was the first wife of King Kyungduk, she was driven out of the palace and replaced by Lady Manwol. Lady Sammo, Hyojeong and their supporters were resented and joined Kimong(金邕) and his supporters, anti-royal group. When their power increased to face against the king, they showed off their power by founding Hwangyongsabell.

Thirdly, Bongduksabell was founded by Lady Manwol and

King Hyegong who wished to reinforce authorities as well as get rid of anti-royal groups through the divine bell, they tried to achieve divine authority, fortify royal power, and get the royal identity recognized.

After all, the rulers in the middle of Silla Kingdom wished their country peaceful through the beautiful sound of bells, to expel the disharmony in policy through the perfect harmony of the bellsound.

Sillabell were founded in connection with the policy, later formalized its peculiar shape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China. Fortifying royal powers, showing off anti-royal powers attributed to the continual moulding of bells in Silla middle period.